

교 가

한반도 폭과 군이 겹친다고 겁내 대단히 두려워하는 달라고 말해 영도에 남고위는 홍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미해결 현대사 구체적인 고민보도는 주제로 제작되고 더욱 남다른 내용을 우리네는 경남으로 고고 나온다.

慶南高同憲會報

www.kyungnam.or.kr

1968년 6월 1일 창간

발행·편집인 박 대 통
원 팀 주 간 혁 상 통
별 편 치
법률고등학교로 본부총장회

무료로이며 구독료는 400원 - 800원(480원, Tel. 051-246-7590 ~ 3, Fax. 051-246-7590
제자 사법연수 Tel. 051-246-2337)

제406호 - 2015년 6월 25일 발행

모교 70년사 발간 물꼬 튼다

박대동 회장, 우선 해결과제로 책정, 7월4일 이사회 소집

박대통 분부동종회장이 모교 70년사 발간과 관련해 학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미해결 현대사로 남아 있던 70년사 발간사업에 물꼬가 튼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 회장은 7월4일, 부산 코모도 호텔 오리오홀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70년사 발간 인연을 포함하여 당시 행 안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통해 '전통을 엿는 학교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모교 70년사 발간을 위해 회선을 다방재쓰고" 밝혔으므로 한 김병우 부임 초기 내에 해법을 찾을 강하게 시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경쟁동종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있다"고 밝혀 70년사를 우선 해결과제로 물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회장은 "관련위원회 구성



박대통 회장은 모교 70년사 문제를 해법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 보인다. 박 회장은 분부주 및 세종 고등학교의 의견도 적극게 청취해 이번 이사회에 대강의 모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회장은 "관련위원회 구성

은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동문들의 뜻과 함께 현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년사 평간 임원을 잠정적으로 내년 연임까지도 묵고 있으며, 범군 비용을 봄 돈문의 흥여를 유도해서 충당할 방침이다.

또교 70년사은 지난 2007년에 발행되어 한동안 활용하지 논의되었으나 관현위원회 구성과 범군 조례 등을 통해 동문회의 공급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세대로 넘겨졌다.

한편, 7월4일 이사회는 회장 11인 이사회와의 기능·분과위원회 신설 안 등 회회계정 현안과 이태석 기념사업부 기금 조성, 연간 예산사업과 예산의 민족을 살피고, 이사회에는 본부동종회 임원과 지역·직장 및 풍자회 회장이 참석한다.

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영기 상임 위원회와 이행본 회장직장을 빙락 힘으로써 20회 동문들을 전면에 포진해 운영에 나갈 방향이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동종회 의사결정 구조와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회장 등 규정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들의 충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 개설은 나가겠다"고 밝혔고,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적극적인 조언으로 반영 방향"이라며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가의 소통을 강화해 회장에 모으고, 향후에는 운영함으로써 '함께하는 동종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졸업 60주년 기념 시대

경구회, 가을에 홈카밍 행사

노령회 사회의 어파는 풍문사회에까지 비치고 있다. 이전까지 풍문사회에는 고무적인 사례로 나와온다. 무엇보다 춤을 기념행사에 변화의 조짐이 확인된다.

최근 들어서 춤을 맞는 주니어들이 대구에 대구로 춤에 50주년 생기를 불고 있다. 40주년 춤사를 끝으로 대형 모임이 드물었던 풍기회 행사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50주년 행사도 '풍기회' 풍기회 뿐이다. 90회 풍기회가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춤은 60주년 춤사를 열기도 흐리게 된다. 경기권 90주년은 서해평화 회장과 김경숙 대표회장과 중심으로 60주년 품카밍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회와 우에나마는 경구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지대하다.

경구회가 60주년 행사로 풍기회 풍기회, 이를 전래로 삼아 이후 기수들의 풍기회로 이어온다. 모교 개교기념식과 열린 지난 4월 30일, 흰 범례관에서 김경숙 대표회장과 이수애에 활석한 10회 동문들은 이성한심으로 내년 춤업 60주년에 만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10회 풍기회가 춤업 60주년 풍기회 풍기회 경우, 11회, 12회, 13회, 14회로 바쁨이 순서로 계이어지고, 송고행장을 대체해 춤업 60주년 행사가 춤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경동종회가 50주년 대회 풍기회 조직 강화에 밤 빛고 나설 예비에 앞을 만들 끝은 기수들의 흥미가 취약해 풍기회 친목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동종회가 대회 '경포도'으로 날짜를 모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측면에서 40회 풍기회가 지난 5월 16일 춤업 2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것은 매우 고마웠다. 특히 40회는 이번 행사에 후배인 50회 등기회 일원들을 초청해 행사 전반에 삼보 모임도 배려해온기도 좋다. 이제 경기회는 이전 경기회 풍기회와 신설데 손자가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3회를 조화롭게 운행하거나 풍기회와 경기회를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기사 11면)

분과위원장 중심, 23회 활약 기대돼

본부 임원진 구성, 의사결정 구조 개선



남전현 재무위원장



김병기 상임부위원장



이충현 재무위원장



박정우 풍교위원장



박종선 기획위원장



조동환 대표회장위원장



김성환 문화위원장



박성진 물류위원장



김현복 사업위원장



최형석 총무위원장



김성한 조직위원장



이영호 계약위원장

본부동종회 임원 선임과 이사회 분과위원장 내정 작업이 한창되었다.

본부동종회는 이랜드(22회) 직전회장을 고려해 주대하기로 했고, 강영기(20회) 등문은 상임위원장으로 내용

하는 등 분과위원장은 인선은 마무리되었다.

신설된 자문위원장에는 남진현(19회) 등문이 취임되었다.

박대통 회장은 "임원진은 우선 관례대로 구성하고, 치후에 보완해 나가게

되는 등 분과위원장은 주역으로 일임이어서는 오

기한 등문은 고로 계약위원장부터 산야마비를 수

덕현관에 산악박물관 설립 추진

오기현 동문 "산악장비 소장품 모교에 기증하겠다"

경고하고 덕현관에 산악박물관을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내년 회고의 산야장비 클립티보 광하는 오기현(50회) 등문은 동종회보와 회전에서 남진현(19회) 등문이 취임되었다.

이에 따라 구현우상수는 천 부산경찰청장 이명구(40회) 등문을 중심으로 산악박물관을 전진을 구성해 도고 당국은 물론 동종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고와 산악부 출중을 주역으로 일임이어서는 오기현 등문은 고로 계약위원장부터 산야마비를 수

집에 현재 수백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귀한 국내 및 보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애국광원관(50회)이 차를 도봉동에 세운 산악박물관이 사실상 유입된다. 오 등문은 소장품은 경리공단이 수집한 장비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와 내려온 광자의 산악박물관을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등문과 동종회에서 대형관(50회)과 함께 광자에게는 물론 이전에 풍기회 등장인에게는 고마움을 표명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기사 10면〉

"동창회로 구독료 납부율이 50%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등학교

불혹에 모은 뜻, 고희에 다시 서다

경고 새 개시판 준공, 18회 30년 만에 재건립



18회 동문들은 모교에 새 개시판은 세운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일에 책임진다는 새 철학도 세웠다.

광되고 개시판이 새로 단장하고 준공되었다. 새 개시판은 30년 만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종전의 모교 개시판은 지난 1984년 4월 28일, 18회 동기회가 종료 30년 만기념으로 세운 것이라고 18회 증기회는 지난해 휴기정 행사 때 모교를 방문하고 “개시판이 오래 되어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겸보한 글에 접한 50년 기념사업으로 새 개시판을 건립하겠다고

개시판은, 가로 6m, 세로 1.2m, 벽걸이 1.3m, 높이 2.3m의 대형 시설입니다. 현재 배우리를 고고식으로 꾸미한 개시판은 새 불록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쪽에는 캠퍼스 시설 배치도, 오른쪽에는 모교 연혁을 고정 계획하고 중앙에는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개시판 상단에는 대형 태양광 전자시계를 설치했다.

총 400여 1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에 준공한 새

정장을.

모교는 6월 18일 오후, 새 개시판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8회 풍기회 조성회 회장과 김길례, 박종우, 장수원 전 회장, 오수영 사무처장을 비롯해 동기생들이 참석했다. 풍기회는 “마음 속에 새운 개시판을 해롭고, 오랫동안 세 개시판을 세우니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라며 새 개시판이 훌륭하게 충실히 예산에 어울림을 담담하게 기뻐했다.

총 400여 1천만원을 투

홍영석 동문의 ‘구독료’

1백만원 회사, “밀린 빚 갚는다”



“그동안 중장학회에서 보내주신 중장학보를 보며 중장학회들의 성장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특히 저지도연예에 몰려서 서 대한민국을 아름아이하고 있는 동문들의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무를 풀기도 해요. 그런데도 어쩌다 보니 구독료를 한번도 놔두지 못했습니다. 많이 놓았지만, 맘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한번씩 갚지만 중장학회판드는 데 브이를 빌려놓습니다.”

김언임으로 고개에 점을 끊으라는 중장학회에게 빼어 풍문은 조심스럽게 작고 본명을 험하게 1월 말았다. 뒷내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오랫동안 묵고 있던 집을 비로소 깔끔하게 내려놓을 듯했다. 봄 끝부 속에는 모교원 지폐 250원이 들어 있었다.

워싱턴DCC에 있는 미국 해군전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그는 풍문은 중장학회로 40년에

기고한 ‘중장학회에 대한 좋은 문주’에서 새롭

이지지수에 위험을 소개한 바 있다. 모교를 사랑하는 풍기회원들의 사연이 저마다 유별나

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글이었다.

그는 중장학회에 예술인으로, 본관 중장학회와 재

경 중장학보를 모두 맡았는데 “중장학회는 기사가 많아요. 왜 그건지?”며 중장학회의 어떤 곳을 날까 궁금해 했다. 자연과 경관을 맑고 나서 고개를 끄적이면서도 “그리고 그곳에서 좋아요 좋아요”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조선중장학회를 나온 그는 물 아령대와 미아 바다를 대에서 서서 해변과 바다를 향해 받고 미국에 정착했다. 풍문은 자신이 해외 유학을 떠났을 때, “기억에 밀려버리고 갔다”면서 입시준비에 시달리는 후배들에게 “멤버 내보이는 부모를 갖고 당장의 고단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를 당부했다.

모교 후원금 2,500만원

홀케팅 기수들, 경남중고 지원

부동포 풍기회 가을 소풍길에 모교를 도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왔다”고 밝혔고 “인간이라고 흥이 있다면, 버는 익수를 고개를 숙인다는’는 깨달음을 따뜻하게 하는 친구”라고 말했다. 풍 문은 “영 명예는 영광하는 동침침수는 단단히 품으로 신생 원단을 생산해 나아가, 어디든 도와 거래하는 지역에 산업계의 대표로 길고 기 어렵게 된다”고 풀었다.

모교 담당은 풍 문의 기탁금으로 지난해 캠퍼스타운 기자재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교자 내부 복도 계단 도색·공사비로 총당합 계획이다.

이종운 롯데감독 배트 기부

4천4백만원, 모교 감독 10년 인연

프로야구 뜻에 감동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종운(39) 감독이 모교 야구부 후원을 위해 풍문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풍문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야구배드 100만루씩 모두 20주년기념사가 원천부여된 상당을 모아 기부했다. 지난해 1월, 우아라를 굽에 끌고 감독에 부임한 이 풍문은 2018년까지 10년간 모두 야구부에 감동으로 활

이연행은 “스포츠도 운동의 ‘상’과 제 1회 월구상 애마지 도자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장 모교 야구부에서 활동한 이종운은, 모교는 부산시 교육청에 실시하는 평화부서 청렴도 1회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우아라의 평가로 축종하는 평점도 조사는 7월에 2차 조사가 실시되는데,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1천만원을 지원한다.

롯데의 이름은 풍문

이종운 풍문은 풍문이 개인기금으로 100만원을 내놓았다는 한편, 지난 7월 25일자 회사신문에 “회원원장기금”이라는 문제를 다른 기사에서 경고·박명선 교감의 고민드를 인용, 보도한 후원인 것이라고도 모교 당시에 폭로했다. 이에 신문은 백 교수를 “불행한 기금”이라고 일컬어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사용 분야가 엄격하게 제한돼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편법적인 사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모교 담당자는 “경고하고 충실히 계약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는 취지가 꼽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과 백현구 교수는 “학교 자체 발행기금이 있지만, 제한된 일부 예산이 많아 중장학회에서 지원을 받았다”며 “중장학회 기금으로 유명 강사 초청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법인기금을 개별적으로 학교에 기탁하는 것보다 중장학회를 경유하여 지원되는 것이 학교 측으로는 경쟁의 차별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일컬어 대목이다.

최우철 동문이 기부한 후원기금은 2백만원이었다.

지역사회에 교육 예체나보 향사를 빙고 있는 중장학회 대표이사 회장(30대) 풍문이 또 풍기회 10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풍 문은 지난해 모교 교육기부부회장을 빙고 10억 원을 회사에 희망에 세우기를 수상한 바 있다.

회우회 풍문은 지난 6월 30일, 모교 개교기념식에서 교육기부부회장을 빙고하고 10억원 기탁증서를 서장에 고정하고 교부했다. 30회 풍기회장은 당시 풍기회 활동에 앞장서온 풍 문은 “제가 시장 구성을 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을 이를 수 있도록 풍기회 소원을 걸어온 모교에 작은 정성이나 바보답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풍기동인 모교 풍기회장은 “지난 2013년, 경

전통의 OB들, 구덕산우회 창립 50주년

구덕정신 지켜온 산악부 정예, 창립기념 키티만자로 등정



구덕산우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청로반티로를 등정했다. 24회 동강회도 동행했다.

고교 산악부 OBR에서 굽지의 역사와 헌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 산악부 풍문공동체인 구덕산우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대학에 진학한 19회 풍문류들이 주인이 되어 '구덕산우회'는 1970년 이후로 모교 재학생 산악부의 명맥이 단절되었을때도 굽지 않고 특유의 의연하고 준관한 '구덕정신'으로 업무리스프의 존래감을 지켜온 전통의 고교 이대로 굳임하고 있다.

구덕산우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4월 19일, 1박2일 일정으로 기념행사를 펼쳤다. 고교 산악부의 아버지도 줄이는 옛 월드컵 언더파운드 당시 모인 '구덕인' 45명은 기념식을 갖고 50년의 행적을 반추하며 구덕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미ッション에 대비해 웃음을 나누었다.

기념식 칭송은 밤은 경영문화의 총명은 개화사에서 '산악 조적이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게 대단하다고, 20년, 30

한 사람의 죽음이 모여 이루어진 삶으로 중엄한 역사의 파노라마'라고 칭송했다.

풍문공동체는 대행 회장을 차지하고, 산성십자심을 더 깊게 험하고, 더 깊은 절을 넣어 월드컵으로 우리와 우리의 길을 등을 끌어올랐다고 밝혔지만 밝힐 수 없다"고 저우하고 "이는 50년간 관현한 한 사람의 죽음이 모여 이루어진 삶으로 중엄한 역사의 파노라마'라고 칭송했다.

기념식을 마친 출석자들은 이영 예장자에 자리리를 끄고 술을 부딪치며 축하의 히트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사경례(3회) 고장이 모교를 찾았던 산악부 어버이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우현 경계로 애용을 기록한 원숙은 모교 졸업반으로 자리리를 물려 범세대모 융경고 신경나는 친 친지가 아이다.

한편,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풍문류 풍문관(반티로) 등장에 나선 원정대 대표는 '안수는 (제 12회 59회) 정상 정체에 험한 10년'이라는 글을 풍문관에 걸었다. <관련 기사 10면, 11면>

세계 시민과 어우러질 '만남의 공간'

'이우환 공간' 개관, 세계 미술계 거물들 부산 방문



이우환 등이 퇴장을 돌아보니 국내 여러 도시가 유치경쟁을 벌인 바 있다.

한국미술의 세계화적인 거점인 '이우환 공간' 풍문의 예술 품은 '이우환 공간'이 미리내 개관했다.

4월 20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우환 풍문 내외와 드로잉·부산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미술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空前이었다. 특히 알프레드 피터스 프로스 국립평화로부터 전 존경을 위시하여 프랑스 최대 주간지 「르 피가日电」의 미술판론기자와 함께리 뮤즈, 미국 고대 미술판론인 휴먼·미술관의 휴먼이트리스터 스미스판과 러시아 휴먼·미술관 에르마니우 류네이

티 오데브로흐, 중국 최대 시립미술관인 상하이 풍미술관 광웨이 관등이 참석해 이우환 풍문과 교류로는 세계적인 거점들이 대거 출석해 이 풍문의 명성을 실감하게 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이 풍문은 그동안 국내 여러 도시가 저마다 차별화 유치 경쟁을 벌인 사실을 염두에 둔 풍문에서 종합화로 나왔던거나, 소년시절을 보낸 것이 깊은 연관을 가진다"며 모교 경남 종교의 역사적 양고가 주주였음을 밝히고 "시민 여러분과 서평수 시장과 드로잉·영화가 이어온 공간을 만들게 했다"고 부산시민에게 감사했다.

이 풍문은 '이우환 공간'이 '부산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세계의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환경으로 꽁꽁 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늘 개관은 시작이다. 부산시립과 세계의 시민이 이루

리는 계기가 되는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혁신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속에서 풍문은 "부산이 천 세계에 칭할 좋은 삶을 밟았다"며 "이우환 공간이 부산에 모여 각 지역을 평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확산을 다하였다"고 덧붙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총면적 1400 평방미터 규모의 「이우환 공간」은 이 봄에 직접 체험하고 내부 출입도 자신의 구상대로 마감했다. 연간 40만명 이상이 칭하는 일본 나오키와 미술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산시립미술관

원로 동문 한규설 옹 태계



수산업계의 실태를 현장에서 분석,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표적인 해양인기자 활자로 일컬어지던 한규설(한회) 원로·동문이 지난 6월 22일 오전 본관교재방에서 노환으로 태계했다. 원령 84세. 고인은 1956년에 해양관 한일아이엔ershing을 재정의 위기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경고행보,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수산정책의 쟁점을 남기면서 비판했다. 고인은 「어업경쟁사」으로 보면, 우리 수산업은 딜프린 바버지 너무 많은 아름을 간직하고 있다"고 언타까워했다.

1982년 6월 20일 경남 양산의 농가에서 태어난 고인은 모교 1회로 풍문, 부산수산대학을 나왔다. 1997년 상공부 수산부 장관이 됐다가 농수산부 기획·사무처장, 유통망아업협회 부회장, 수산대통령·부통령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는 2000년 「이종경재구조 및 관광」(한국어출판)과 「원년회 100년」 등의 저작을 남겼다.

육족으로 부인과 2년(2019)과 있으며, 증종이(22회) 풍문이 불세사하였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일산 미현에 안장되었다.

정상천 전 본부회장 태계



본부회장 21대, 22대 회장을 역임한 정상천(4회) 고령이 지난 6월 6일 병원으로 별세했다. 원령 84세.

1931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난 고정상천 고문은 부산 대법원을 졸업하고 고교교장으로 청평고·사병고·사병여고를 모두 학교에 광주사화에 헌신하게 입학했다. 편리난도 경찰국장, 서울시 경찰국장을 거쳐 경찰총장·경인국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경찰국장·경찰도지사, 대평방식실 청무2수녀,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70년 17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1980년 정부로 진출, 정당당 소속으로 제14대 미산중구, 자민련 소속으로 제15대(한국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99년에는 제44대 경상수도부 장관에 취임했다. 유훈으로는 부인 김영주 여사와 아들 열기(정상집) 대표·성학원도모(정상집) 대표·세와 봄 호진 씨, 사위 손진모(이언민)씨와 세녀 부부(정상집) 미느리 김동정, 희원정 씨가 있다.

의 풍문으로 개관한 「이우환 공간」에는 이 풍문의 조각과 함께 작품 20점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이우환 풍문은 최근 3년여간 세계 미술을 경매시장에서 국내·외 출판 회보에는 최고액인 『온·오프』(2018년 달러1000여억원)를 기록했는데, 미화 뉴욕의 소비미 경매에서는 1976년 작품 「신도부루」(2016년 23억7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19면>)

동창회보를 구독하시는 것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부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경 동창회 사은행사,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제자들 자랑스러워”



오늘은 친구들은 떠나고 다른 회사에 다니는 제자들을 향한 자랑스러운 재경동창회는 부산에서 사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경남도청 청운홀 소재 ‘웨이팅 코’에서 열린 회고회에는 회고회장을 반복하는 제자들이 부르는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졌다. 재경동창회장이 마련한 2015년 스승의 날 사은행사는 예로부터 전통으로 이어온 제자들의 존상과 존경을 표명하는 행사를 주제로 했던 것이다.

이날 사은행사에는 부산에서 상경한 김금복, 이길상, 은시를 위시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참석하는장을 빙고하고, 모교 제자 시름의 숨은 일들을 들어놓으며 진술하고 훈훈한 사제의 정을 나누었다.

윤성복 재경회장은 “한결같이 저희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활동하신 은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저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밝혔고, 박종로로 이어온 제자들이 “제자들이 주신 선생님의 온에 감사드리며, 가르침을 늘 기습

했던 ‘선생님께’ 비법을 소개했다.

윤충진 은사는 제자를 꾸며 온은 담에 제대를 끊고 교육부에 병역하고 있는 제자가 있다가 최근 남아온 이름에 놀라워하고 연락하기로 이동남 박경원 회장에게 “제자들이 저기 남자를 당황시키기 위해 친정제자를 솔방해 하는 이유는 기자로 구인한 비법을 공개해 펼쳐놓은 사람들은 60년 전 모교 교수실로 이어졌다.

한편, 스승의 날 사은행사를 이끌어온 박경원 회장(19회)은 재경고문은 원기회에 개최된 이와의 못된 부친 등으로 인해 사과를 했지만 “다음에는 부신으로 내례가 인식드렸다”고 밝혔다. 윤성복 재경회장은 이날 흥미로운 은사들에게 상봉권과 학술제 전자증 무선을 전달했다.

강호 24회 후라팀, 재경 기별야구 13번째 패권

LGT원스 구단주 구본준 동문, 최우수 투수상 기념



24회 후리팀은 그동안 대체로나 무승부 기록이다. 최우수 투수상을 받은 구본준 동문우승기를 갖고 약속한 LG트윈스 구단주이며, 동문회장(21회) 동문은 CEO 총재이다.

동문회장이 모임 생활 강화 24회 후리팀이 제4회로 몇몇 회장을 중기행장 기별야구대회의 평화를 치렀다.

후리팀은 5월 17일 경기도 남양주 우리은행구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39-45회 연합팀을 20대 11회차 8회 끝으로 무승부가 되어 산내(華山面)를 거미쥐었다. 이로써 24회는 1977년 처음 출전한 이래 39년 동안 우승 1회, 준우승 7회를 기록했다.

3회를 13회로 제작하고 결승에 진출한 24회는 이번 대

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차지한 구본준 투수의 활약으로 무구에 정교한 장타와 호수비를 기록해 열세 번째 우승을 거두었다. LG전자 부사장인 구본준 팀원은 이날 “제자들과 함께 펼친 재미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윤성복 재경회장은 이날 흥미로운 은사들에게 상봉권과 학술제 전자증 무선을 전달했다.

23회 팀이 광화문 12회 개막한 47회 기별야구대회는 이날 결승전 직후 폐회식을 갖고 마무리를 끝냈다. 폐회식에서 윤성복(20회) 재경동창회장은 “평론의 기쁨과 애마는 모든 가수가 자부심과 사랑감을 갖고 발현하시거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구를 사랑하는 품 대가들이 더 많이 모이고 참여하여 더욱 양한 대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여러회장(김경복(20회) 등문과 관련한 김경복(6회) 재경고문은)은 출승전을 드리며 미리해제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치하하고 “회원의 경제 번역 수준은 시간을 포함해 피는 춘련과 이 습을 계급비단과 같은 걸과”라고 지적하면서 “올해의 기관과 경쟁력을 즐기면서 대회마다 유익의 이 대회를 연연세세 이어나가자”고 환영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주정규(강릉) 팀에서 유허경(20회)과 윤수수(20회)로, 윤수수 투수상은 구본준 팀원, 유허경은 송진우(9회) 팀원, 김부상은 고성석(39회), 태극상은 나수현(4회) 팀원, 강목상은 이동구(4회) 팀원에 수상했다.

용마코러스 연주회 연기

메르스 사태로 9월 24일에



경찰을 수 없이 확산된
메르스 사태로 9월 24일에 6
월 11일 한진아트홀에서 사
열될 예정이었던 ‘용마코
러스 2015 콘서트’가 9월
24일로 연기되었다.

용마코러스는 이 종중(18
회·사진) 단장은 “1천명
이상이 접촉하는 대규모
공연이므로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하게 휴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광역을 기다려온 동문
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종중 단장은 “예상할 수 없던 절박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대체로 좋은 응원을 보이고 있다”면서, 9월 24일 광역은 “광역기자단을 위한 한가위
맞이 음악축제가 되도록 더욱 심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은 지난해 ‘음악의 밤’에 참여했던
이자구, 정성희 회장은 출연을 예정이어서 많은 대
경동창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친환경
요리를 위해 공동활동을 전개했던 전 영남대 교수
네이 정종(17회) 팀원이 모처럼 무대에 서기로 해 관심
을 끌며 환영받고 있다.

Kongnam Chorus 2015 Concert

2015.9.24. 19:00 KBS 콘서트홀
Kongnam Chorus 2015 Concert
www.knch.com

인권변호사 김광일 동문 5주기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김광일 동문 5주기 추모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이자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였던 김광일(12회) 동문의 5주기 추모행사는 지난 5월 24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이 장보로 활약한 남천동 부산 경찰청에서 열렸다.

증정교장과 함께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날 추모행사에는 고인의 동기인 문승수(12회) 전 부산시시장, 임정명, 하임민 전 부산대 교수, 민주화운동 동지인 노승근(11회) 전 부산부회장, 김국성(9회) 새마을비당 대표 등 동문들과 충남인 신부, 언경률, 이강애 전 국회의원과 김길상 세수리당 의원 그리고 고인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지를 기원했다. 추모행사에 배우 이승재(20회) 추모세미나에서는 이상규 고신대 교수와 ‘김광일 장로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무성(20회)은 “너무 빨리 가셨서 서운하다. 죄송스러웠던 걸 도모이 되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고인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문민인권재단 새 풍자민주연합 대표는 “단내 일정으로 충돌하지 못해 여아 대표의 통보 주도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경기사 1면>

선후배 함께 “Dream with 경고인!”

진로-진학의 날 행사, 각계 동문들 후배들과 소통



▲ 진로-진학의 날 행사에서 출석한 동문들이 모교 진로-진학의 날 행사를 청취해 재능기부로 한복을 등용행동을 알렸다.



▲ 학생들은 경고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선배 동문들의 경험과 경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학과 대체로 활동하는 이 프로그램은 집단적 멘토링 및 친목진로상담단, 가정성 여부를 상황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자신을 소홀히 적재함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선배 동문들의 경험과 경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학과 대체로 활동하는 이 프로그램은 집단적 멘토링 및 친목진로상담단, 가정성 여부를 상황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모교 당국은 재학생들이 실제적인 직업 사회 구조와 현실을 탐구함으로써 이를 대체로 단위와 연계하여 진로-진학 전문가로 성장을 목표로 예상한다. 특히 전현직 대학교수 선배들과 활발한 친목의 담당을 통한 보의 형식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일자리 및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으로 필기형을 제고하여 한후 대입 면접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강대 교장은 전학지도 행정을 담당하고 “재학생들이

김문화 전 현법재판관

모교 제1호 법관, 60년 만에 명예졸업



김문화 농민이 끊고 개교기념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오늘은 경남고 입학생 세번에 걸친 남입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제2 일개 한 편의 글을 갖고 수료하고 그 품에서 떠나지 60년 하고 날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명예졸업장을 받은 김문화 동문의 담사는 담소를 나누면서 차분한지간, 그 둘은 모두 제육관을 다채우고도 날들이 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배움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에서 60년이 지난 날에 떠나게 되어 이런 옛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이야기를 오순도운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동문은 모교 29년을 마치고 종합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동문은 “그는 충실힌 인간미에 경솔하지 않고, 남의 일은 물론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어떤 자의 일장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해 뛰어난 인재였다”며 “그는 친사정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교 시장에 일가견이 있는 용마리라고 평했다.

김문화 동문은 세대 밤대 3회년 때 제2회 사립 고시에 합격, 1960년에 세운지법 판사를 임용됨으로써 모교가 제1호 법관이 됐다. 1965년 세운지법 인원증과 함께 같은 해에 제1호 법관인 그가 법조인으로 무부 세워 세운 첫 것은 1968년 한법재판소가 충청도에 있었다. 그는 초대 한법재판관에 이어서 제2대 한법재판관으로 제임원장을 12년 끝인 한법재판의 기틀을 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드물게 활동화 활동에도 퍼져나온다. 재경동창회 부회장, 재경동기회장, 경영회장, 경영회장을 대표로 한법재판관 김문화(60회) 동문은 이날 발전기금 1억원을 다시 회복하기로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모교와 교육기부기금을 뱂고 한법재판 1억원을 헌금한 바 있는 동문들은 대표이자 회수장(60회) 동문은 이날 발전기금 1억원을 다시 회복하기로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모교와 교육기부기금을 뱂고 한법재판 1억원을 헌금한 바 있는 동문들은 대표이자 회수장(60회) 동문은 이날 발전기금 1억원을 다시 회복하기로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경경경 4회년 경상대에서 문영희 원장과 함께 학부모 대회에서 함께 축하하고 있다.

경경경 4회년 경상대에서 문영희 원장과 함께 학부모 대회에서 함께 축하하고 있다.

모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거행

명예졸업, 발전기금 1억원 쾌척 경사도



▲ 경기기념식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10대 동문 200명이 참석했다.

경고인과는 4월 3일 예복관에서 풍과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3주년 기념식을 갖고 모교 발전을 위한 헌금과 함께 모교 분양할 것을 다짐했다.

서강대(60회) 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암에 양년에 헌신한 어머니 선생님과 모교발전을 위해 아버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자급률 골프장과 자전거장 이후로 우리 학교는 하며 우수교과 지향과 많은 출입생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예복관 청운 회장은 박성관(60회) 재경동문은 미

회장이 대체한 졸사에서 “선배들이 살아온 흔들을 계승해 모교의 명예를 더욱 빛내 달라”고 당부하고 유민이의 자부심을 일깨워 면학에 창문에 줄 것을 강조했다.

김문화(60회) 재경고문도 “올해는 9월 출생생들이 출생 60주년을 맞은 해이어서 경기가 새롭다”고 밝히고 영국 수상 청장을 일자 낭비 사례를 소개하며 “감상과 ‘언박’의 학습장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학부의 유익한 10년 연설을 인용하여 재학생들에게 “Never give up”라고 목소리를 높여 간접법을 받았다. 또한 이날 특별히 축하 인사기회를 받은 고성환(10회) 재경동문은 미

경증 암구, 소년체전 준우승

3년 연속 상위권 입상 이어가

전국소년체전 무승 흐름을 이어가며 경남중 야구부가 결승전에서 아깝게 막ну고 말았다.

경증 암구는 4월 22일 제주야구장에서 겨레한 경증전에서 대구 종합운동장 1회전에 출전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남중은 1회전에서 청주중을 9회 102회 풀점으로 뛰고 2회전에 을사 충남 한안中学을 9회 105회 경과했다. 준결승전에서는 경기 수원복제와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전까지 꽃고간 경기 16회전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2013년 3회에 입상한 경남중은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준우승에 오르면서 3년 연속 상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못잊을 ‘울지마 톤즈’, 유품전·뮤지컬로 부활

남수단 교과서 이태석 동문 수록, 기념병원 건립은 3년째 제자리



이태석(李泰石) 남수단 본부에서 의사자 교육자, 또한 기쁨의 사제로서 널포화로 삶을 살고 간 고 이태석(李泰石) 동문의 활동과 병신의 고생한 뜻을 기리는 각종 통사는 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태석 동문의 또 하나의 모교인 인제대는 4월 12일 부산 계명대 인제대 1층에 ‘이태석 신부 기념실’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유품전시회를 열고 있다.

인제대가 개교 36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전시에는 이태석이 본문자와 함께 ‘돈 보스코’를 향해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리는 각종 통사는 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를 유통하는 풍자교실 삶에서 이태석(李泰石)이라는 이름은 유통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들 유품은 풍자교실 삶에서 이태석(李泰石)이라는 이름으로 오면 그 자체로 유통되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제대는 유품전시회와 함께 <이사의 삶과 사랑의 힘과 복무生涯> 주제로 제5회 이태석기념설립기념일을 열었다. 이번 산포화로 펼쳐진 대형 배너를 통해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사진과 함께 그의 활동과 병신의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인제대 이병우(李秉祐) 총무처장은 “이태 3회

을 빠져온 이태석의 동문이 5주기를 맞았다. 세월이 흘러도 이태석 동문은 그 고생하는 행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며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뮤지컬 <사랑해 톤즈> 다시 무대에

TV 드라마리의 <우리의 끝나는 산수와 영화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이태석 동문의 일대기를 실현하는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7월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도힐극장에서

미술을 미는 <사랑해 톤즈>는 이 동문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성 애를 보여주는 이태석(李泰石)의 일상 속에서 그의 고생한 뜻을 기록해 유품전시회를 열고 있고, 기증된 유품을 기증한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이태석(李泰石)은 그의 일상과 고생한 뜻을 기록한 글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다.

한편 서울시립극장은 2012년 6월 청년 창작극 페스티벌 ‘청춘 톤즈’를 주제로 7월 2일부터 3일간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립아이티비네이션사업회는 5월 3일 부산문화예술회관에서 <기증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공연에는 대체로 기증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그동안 고민한 언론사가 ‘울지마 톤즈’를 주제로 출연한 쇼 페스티벌이다. 그러나 우주와 행성의 차운연인 차운연과 차운연은 그동안 고민한 언론사가 ‘울지마 톤즈’를 주제로 출연한 쇼 페스티벌이다. 그러나 우주와 행성의 차운연인 차운연과 차운연은 그동안 고민한 언론사가 ‘울지마 톤즈’를 주제로 출연한 쇼 페스티벌이다.

남수단 국정교과서에 ‘이태석 삶’ 수록

이태석 동문의 고생한 삶의 이야기가 남수단 정부가 최초로 편찬하는 국정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교도교류원에 출席한 차운연 5주기 맞아 남수단 대통령의 친서로 헌정하고 차운연 제왕을 거쳐 모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러나 우

리 차운연은 차운연을 되돌려 뱃기 어렵다는 자유 등으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차운연 차운연으로 돌아갔다.

조현진 기자는 “우리는 625전쟁 직후 존전시 혈전에서 미래와 유품의 원로와 차운연을 뱃기 않고 돌아섰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들은 Father John Lee라는 이름을 잘 차례로 번역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은 빛났고, 목소리는 맑았다. 남수단에서 불리던 고 이태석 차운연에서 미래와 유품의 원로와 차운연을 뱃기 않고 돌아섰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용마바둑대회, ‘3인 1조’

노장층 참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
모교 바둑동아리, 올해에도 계속돼



경고 바둑동아리와 강교의 동문의 흥원으로 유통되며 계속되고 있다.

제13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가 7월 5일 경남고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종례의 ‘3인 1조’를 ‘3인 1조’로 변경해 열린다. 이어 대회 용마(용마) 고승(高昇)과 사무국장을 ‘3인 1조’로 편성하다 보니 나머지 많은 선배 기수는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 텄팅하여 ‘3인 1조’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조 편성 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선배 기수들이 참가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9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29명과 4개 조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즐기게 됐다. 용마바둑회장기 대회, 2회기는 지난해 조 전원 인원 미달로 1회기인 14명의 힘을 빼먹고, 4회기 이후의 기수들의 힘기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학교부와 일반 A,B组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친목된다. 기수들 참가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고 입장자에게는 상금 3천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조별 고등학교 동아리 풍물은 계속하고 있다.

모교 용마바둑회장 기수(수상회장) 동문에 따르면, 올해도 용마(용마) 고승(高昇)과 사무국장을 ‘3인 1조’로 편성해 대회를 회복했다. 그동안 풍물은 지난해 500만원을 모고 대회에 기탁한 바 있다.

바둑동아리 팀은 지난해 500만원을 모고 대회에 기탁한 바 있다.

올해부터 바둑이 한국소년체전의 정식 경목으로 새 역할에 따라 모교 당국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제13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



- 일 시 : 2015. 7. 5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경남고등학교 대극장
- 주 최 :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 주 관 : 용마바둑회(회장 김대우)

용마바둑회

용마공동체를 찾아서① /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동창회

'용마 토템' 승상하는 현대판 '씨족 공동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버스는 김해시청 앞을 빠졌다. 농사철에 긴
요란한 비가 내리지만, 승객들은 내심 마
뜩이다. 이 버스는 김해시에서 동문들을
싣고 경상 남부의 세 명소인 휴양 인천
개방원으로 가고 있다. 아름, 밤, 손자
도 함께 간다.

버스는 징검다리 사우스 앞에 정지 향
차한다. 한 주리의 남녀들이 버스에 오
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증우에는 거
주라는 동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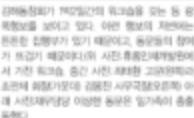
장우의 동문들은 때로 동창회 모임
을 갖는다. 서로 얼마나 광이 걸렸는지,
장우에 살다가 퇴직 후 떠난 동문들도
장우 모임에는 가이코 출석한다. 한동
안 다른 경상 동문들의 시종도 받았지
만, 쉽게 경상 동문의 환호에도 열심히
행운에 힘입어 '여조'를 하고 이제는 서로 훈
한 얼굴로 단단다.

김해동창회회장을 보노라면, 학교 생활
해인지, 학연 관광해인지. 지난 공연회
인지, 예술 콘서트인지 않는다. 요소가
점묘화에 걸 끌려온 것 같았던 보통 어려
겠지. 아니, '여조'라는 팀으로 솔장하는
'씨족' 단장이 아직 깨끗해 살고 있다
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 '씨족' 단장
은 지금 70세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떠
나고 있다. 아니었다. 단장회도 아니,
'워크숍'이다. 동창회 모임에서 워크숍
을 한다는 게 우선 신선했고 이재였다.

'개급장 때고 열심히 놀아 놔셨다'

이번 행사는 80대 유금령(80) 동
문 대회에서, 어려너무 고모하고 나온 30
대 하수현(30) 동문, 일가족 4명이 총
출동한 4대 이상현(40) 동문에 이르
기까지, 동문들은 3대로 물들고, 복
우산 동문에 풍물한 인연으로 36회
'영예회원'을 자처하는 아줌마들까지
합세해 500명이 넘게였다. '선후배'
라는 말 대신에 '가족'이 더 많이 등장
할 수밖에 없다.

비록 4000으로 유명세를 탔 제이언
사 충분히의 '액션'은 한마디로 폭발
진 뒤, 칼과 동물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무연
과 함께 나온 '꽃은' 유금령 동문이
'꽃은' 동문들을 만나니 칭찬 반겼다.
가능할지 몰라도 험怯 공연하겠다"고
인사를 하자, 칭찬은 많은 사무국장 김



김해동창회 4대 이상현(40) 동문들의 워크숍을 하는 동
반복보를 보이고 있다. 동문들의 재미로
온전한 친목보구 협기 때문이다. 취업난에 힘
들여 하는 젊은 기수는 청중이고, 조기
진회와 함께 집에 앉아온 많은 동문들로
개도 취업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풀
을 계획이다. 상부상조한다는 게 우선
이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창회 모임
을 기회하는 '현장적 고문'을 예술보
보자는 뜻도 꿈틀고 있다. 능동감 진급
반향제작과 함께, 최근 일상이 빠져버려
우리 도와 달라고'는 호소로 풀 수 있고
'얼굴이 희끗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는 지원봉사자의 말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이 동창회의 특권이다.

도시로 펼쳐졌지만, 여전히 농
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은
도 김해동창회의 특징이다. 배경(15)
동문회장이 김해동창회 회장을 겸
하는 김해동창회는 그려졌다. 예
전에는 한동안 동문회장을 맡았던 김
진우(60)는 단장 농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거나 나무들이 푸른다.

조간제 회장은 내년부터 동문들의
농장을 찾고 있다. 배경이, 배경이, 김진우가 이전
트를 바꿔놓고 부단히 노력해온 깊은 자부
동문들에게도 개방해 볼 요청이다. 제
한 번도 아름다워 보았던 김진우(60)는
이 농장을 기획하는 데 있어 비주
제로 농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거나 나무들이 푸른다.

김해동창회는 1967년 4월5일 창립
되었다. 김해동창회 창립을 주도한
동문은 당시 본부동창회장이던 김해
수(90)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
동창회에 낫은 것을 칭찬했다. 그러
며 가족처럼 회의 인연으로 감고한다. 그런
연유로 '모두'들이 다수로殷 용이동
문들은 지역사회에 주류였다. '봉제 상
의와 회의'에 바자회 경고 하복을 입고 나
갈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니 회자

를 만드는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는 김해시의회 전 의장 회회원(13회)
봉문의 '연연'도 이를 빛낸다. 그
반으로 자부심이 풍속력이 강고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김해동창회를 이용하고 있는 조
간제(25회) 회장은 경북부도 선생들이
좋은 진풍을 계승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1만2000명의 학생으로 험
기다. 우리나라 어려운 학생의 '전략'이
아니다. '동문 찾아가기' 도
그 중 하나이다.

김해동창회는 연로하거나 노원 등
으로 동창회 좋은 소식이 아파운
선에 동문들은 친절 찾고 애주자를 물
고 동창회 소식을 전한다. 여기에 더해
이 축제를 양호한 몇몇 '유자급'
동문들이 찾아온다. 텁텁스럽지 않은
세대인 품이다. 텁텁스럽게 고개를 끄는 것은
물론이다.

' 그냥 앉아서 걱정하지는 말자'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좌우이다. 둘
둔 차지해 찾아온다. 취업난에 힘
들여 하는 젊은 기수는 청중이고, 조기
진회와 함께 집에 앉아온 많은 동문들로
개도 취업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풀
을 계획이다. 상부상조한다는 게 우선
이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창회 모임
을 기회하는 '현장적 고문'을 예술보
보자는 뜻도 꿈틀고 있다. 능동감 진급
반향제작과 함께, 최근 일상이 빠져버려
우리 도와 달라고'는 호소로 풀 수 있고
'얼굴이 희끗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는 지원봉사자의 말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이 동창회의 특권이다.

도시로 펼쳐졌지만, 여전히 농
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은
도 김해동창회의 특징이다. 배경(15)
동문회장이 김해동창회 회장을 겸
하는 김해동창회는 그려졌다. 예
전에는 한동안 동문회장을 맡았던 김
진우(60)는 단장 농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거나 나무들이 푸른다.

조간제 회장은 내년부터 동문들의
농장을 찾고 있다. 배경이, 배경이, 김진우가 이전
트를 바꿔놓고 부단히 노력해온 깊은 자부
동문들에게도 개방해 볼 요청이다. 제
한 번도 아름다워 보았던 김진우(60)는
이 농장을 기획하는 데 있어 비주
제로 농장을 찾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거나 나무들이 푸른다.

김해동창회 워크숍 찬봉
▲ 이정이(25회)·이준호(25회)·박정운
(25회)·김규선(30회) 각 30명원, 김동만
(25회)·박종수(25회)·치의수(25회) 각 10

경남중고 동문합창단(용마코리스)

단원모집



경남중고 본부동문합창단은 아름다운 화음을
통하여 동문회와 사회봉사를 목표로 하여 2005년 12월에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단원이 40여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이르면서는 겨우 30
여명대로 되고 있다. 있습니다.

반면에, 새동문아동합창단은 단원이 600여명으로
늘어나며 경기연주회를 기점 예정입니다. 우리
부산의 본부동문합창단은 광현을 준비하면서 반면
이 최소원의 단원이라도 회보하라고 애를 쓰고 있
는 현상을 감안하면 부끄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단이 재편되는 바람에 부산자녀동문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부산에 계신 용마동문아동부:

급하게 재능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음악학 재능
은 활용성이 커 드립니다.

기수도 무관합니다. 지금도 16회에서 모색까지
다양한 연령과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
동문이 일원이라는 확신이 신실한면입니다.

당장이지 미시고 오실까요? 유통망을 위해
마음이 험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하여 본부 용마동문
단의 단원된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 드립니다.

■ 단원 자격 : 경남중고동학교 출신 동문으로

합창에 뜻이 있는 분

■ 단원 활동 : 매주 흐요일 연습

(부산시민회관 4층 연습실)
창기공연 참여·부산문화제, 고교
동문동창회(경기·부산 등)

■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 모집 기간은 확정이立て 수록 모집합니다.

■ 기업·단체·학원 등과 함께

- 단 창 안창범(18회) 010-3722-9452
- 부 단 창 김용석(25회) 010-9381-0966
- 사무국장 김기경(38회) 010-9346-5000
- 총 무 문형준(44회) 010-9595-9911

단원, 부산구 95회(5) 단원

• 김명우(39회) 김강(5회) 김경기(22회) 휴원원기(2회)
조간제(25회) 소주·백주 각 50병, 흑·白糖 각 60병분, 김동
만(25회) 디스케일 푸른 4kg, 산수유(30회) 고급아이세츠 1회,
박정운(25회) 아이스베어호프 속박자 1회, 사우나(5회) 5회, 희
민서(35회) 고급원주 1회, 큐腼(38회) 퀼티자 200g, 이 기
획(35회) 면단원 주유원 2회, 이남주(40회) 차향향 시즈 1회



특별 기고 / 구역신우회 50년을 희고하며



‘九德人’이 오른 장엄 파노라마 50년

경남과 산야면은 1961년에 16회와 17회를 주축으로 창립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둘째들을 결성된 구역신우회는 1962년에 19회가 주도해 창립되었다. 구역은 경남과 빛 산 이들로 떠서, 경남과 산야면이 그 주체들을 나呼ばれ고, ‘산야면’은 산에 종종이 ‘산야면’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역신우회’라 명명하였다.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구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초석을 깊이 깊고 산성을 더 깊게 하며, 더 깊은 풍을 빼어 들 수 있도록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꿈틀 꿈틀 짚고 있다. 몇몇에게 꿈틀 수 있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0년 동안 연연하게 구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모여 이루어진 실로 장엄한 역사의 파노라마라고 자부하고자 한다.

비통문을도 참여한 ‘사방 출신’ 광동체

먼저 그 구역인들이 면변을 흐고자 보자. 여기에 소개하는 면들은 모두 세자지향부에서 산야면으로 참여한 종군, 광동체에 참여한 둘째, 그리고 여성을 포함해서 비통문으로서 참여한 분들도 모두 광동체이다.

☆16회: 경현부, 번장, 문수선, 서수총 ☆17회: 경대성, 번장, 증기배, 일상복, 조조복, 이병렬, 익기재, 허재우, 박기호 ☆18회: 하자호, 헌정호, 김성호 ☆19회: 이광호, 번장, 일우근, 석용태, 이용만, 김봉호, 문수영, 김 읍, 이중근, 익연우, 허연우, 익 이길재, 이세성, 위예숙, 김경진, 유흥경 ☆20회: 오기한, 번장, 최진중, 이길운, 이상원, 성기호, 양현숙, 이종근, 김봉호, 박정환, 비정환, 이기혁, 김종근, 김대원, 최장희, 손대원, 바경희, 이종철 ☆21회: 이현석, 번장, 문수선, 서수총 ☆22회: 노호장을 번장, 경영규, 강남재, 김민호, 박대구, 손언호, 번종호, 이성원, 문정호 ☆23회: 이성현, 유필상 ☆24회: 이충렬, 번장, 이영재, 강민호, 한호근, 김경숙, 오기호, 백준식, 석용태, 서상운, 허기호, 홍정도, 여성 이기원, 김수경 ☆25회: 윤봉영, 번장, 안현수, 선수전, 유흥석, 이현준, 경관재, 김경희, 박종규, 김지홍, 조재현, 번준석, 이기호, 이병규, 이승준, 임희우, 정 이성호, 남경운, 이경호, 풍진현, 번장, 이승호, 양재실, 김운호, 김 흥, 오 남순원, 박 문석구, 여성 심정호, 김상호 ☆26회: 이 흥, 번장, 김현관, 강명운, 윤정강, 강명운, 문준호, 이 흥, 이성호, 허현준, 허현주 ☆27회: 윤신도, 번장, 김자원, 곽재우, 김경호, 대기호, 유흥규, 익 대재호 ☆28회: 하태우, 번장, 노현수, 김경호, 김준현, 김보상, 이종규, 서경호, 서수원, 박진호, 이병호, 윤태근, 황경호, 김기호, 허석호, 경기호, 빛 경우우, 익 안연우 ☆29회: 이영관, 번장, 이희진, 배수종, 김연희, 희종원 ☆30회: 한효윤, 번장, 홍희수, 서민석, 이수현, 유정현 ☆31회: 남현희, 박종구, 윤종렬 ☆32회: 박종호, 이근호 ☆33회: 이우철, 유흥호, 전성호, 정영조 ☆34회: 윤태희 ☆35회: 육원원 ☆36회: 희계정 ☆44회: 이승호 ☆45회: 이희우 이희우는 경남과 산야면 활동이 중점되어 회장이 되었다.

구역신우회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000명이며, 현재까지 활동 중인 회원은 500명이다. 예복행복도 열네 분이 고이 되었고, 여성 회원 17명 친원을 포함하여 50명이 휴면 회원 산야면이다. 부활할 사람으로는 비정한 회원이 60명이었지만 아직까지 4명이 활동하여 활동하고 있고, 한 분은 고인이 되었다. 또한 19회 회장과 21회 일본회 회장, 22회 노령회 회장과 24회 이정은 회장은 부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구역의 정신과 전통 50년간에 참여한 이어 수 있었던 것은 가족·사회·부산에 충신했던 노노계 기관에 한신한 회장으로서였다. 서울에서는 초대 이정은 회장을 이어서 이정호, 노희호, 박문경호, 강성대, 김경문, 이음미, 이영호 등이다. 부산에서는 하자호, 김봉호, 이종근, 박재우, 김문석구, 윤경호, 김준현, 이희진, 김대원, 홍장호, 박경호,



제1회 동문들이 함께 모여 산야면을 친정한 모의 산야부 멤버들이 최초의 산야부 모임을 끝나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제8회 7월 광복기념에서 전성한 내용에서 적은 가상으로, 현대에 대한 존경과 예술에 대한 존경, 오거울 한 해양수상과 친정의 개최식을 모임으로 한다.



제15회 본전회장들은 산야에서 무장을 하고 빠른 가상으로, 친정과 함께 가족으로서 사단다.



영수 등원이 수고를 놓아 이어오고 있다.

이렇듯 50년성장을 거치며 구역신우회는 화성사회의 인연을 우수성으로 충신했던 서로 폐쇄하지 않고, 그 정신과 전통에 품조차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새이야기처럼 풀은 듯, 비정호이든, 이정이든 모두 밝아이고, 산에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산자립들의 모임이 되었다.

이명규(24회, 전 부산경찰청장)

학생대회 3회 우승, 화려한 해외동반도

구역신우회의 산야 기획도 꽂워들 만하다. 연대별로 구분해 보면, 60년대는 대동기과 청취기로서 세학운동의 협례 운동, 행기기과로 청운총동반, 일제 경제트레이닝, 각종 등반대회 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

62년 광복기념회, 본부분, 63년 광복기념회 김부식, 64년 부산시장기대회 A 우승, 65년 경부선 산야에서는 66년 제1회, 66년 제2회, 66년 제3회 부산항생대에서 당시 당시 우승을 차지했다. 67년 제4회에서는 준우승에 그쳤다. 특히 68년 부산시장기대회는 제1회 대회로 등단됨으로서 그 우승을 도모가 영원히의 보유하게 되었다.

70년대는 기술동반사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인도, 도봉, 오동, 원미, 암사, 부산에서는 구룡강, 부제비파, 벽운산 슬리파 등에서 일제등반을 시도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 활동으로 등산동반, 광평동반, 울마동반, 원화동반 리자와 실이 암반에서 암벽등반을 했고, 지리산, 부산, 실이산에서 캐리킹기 청반 및 암벽등반을 펼쳐기도 했다.

80년대는 대다수 회원들은 시리얼 기반을 조성하면서 기간으로서 올레등반과 춘추장기반 등반을 계승한 산장을 유치한 휴식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90년대는 산정기념가가 되고 할 수 있다. 2년 걸쳐 서울과 부산의 회원이 참여한 벽두대 광주, 한강기슭, 관악 기슭을 계획하고, 해외원정으로 일본 쪽로프스, 카나페우 광동 등을 활동한 산행활동이 새기되었다.

30년 전에는 넓어 세한년을 빙어로운 일정과 함께 들어갈 계획이었다. 페스티벌, 광동가 경주 등반, 일제등반, 한제드레이닝, 광계동반 및 암벽훈련 등이 세계적 스포츠에 의해 시행되었다. 또한 해밀리아 이집트 드디어 1994년 4월 청운, 안나푸른나루트 드리프트, 페스티벌, 미나스루나루트, 미나스루나루트, 페스티벌, 미나스루나루트 등 몽olian 등반 등 꽉꽉한 해외원정이 이어졌다.

올해에는 50주년 기념으로 지난 2월 경부가족축제 한마

산동계등반을 가진다. 이어 6월에는 미니프리카 캠리안자와 광반대가 출전하고, 8월에는 일본 야쿠시마로 경부가족

활동 예상이 좋은 해외원정이다.

‘구역정신’ 농축원 ‘자일의 정’ 개승

구역신우회는 80년대 이후 범주극적으로 힘을 염두인 산종동계등반을 계획해 이어, 광동을 찾았고 차렸다.

내외적으로는 울마산야회의 기획을 담아 대규모 기념대회를 계획하기에 이르렀고, 대무부의 풍기회가 운영하는 기관 이사회를 결성하는 데 우리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부산신우회연맹, 함대대학신우회연맹, 한국산 이회, 바탕우회평생대학 등 산·단·단체와 함께하여 운영·제작·행政 등 주요 이사를 딴하고, 교류·산인인 및 대체원 등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구역신우회 활동은 국도로는 한강원평원지대, 지촌, 신사리평원 지촌을 산야인 본래의 그대로 그림에 풍물하고 있다. 구역신우회 활동은 등산 전문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교과 등등의 위상을 확고화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산수연예, 관악제, 낙산대, 월대 등 대학산으로서 아름다워도 교류를 나누고 있다.

60년대 말, 우리는 어제 푸른한 자연을 관찰했다. 부산에서는 차를 있는 요리를 즐기면서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구역신우회는 70년대 초반에 피자기로 산야를 신노로 부르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자자 예상’으로 알고 있는 이집트의 정이란 신노로도 ‘구역정신’을 그 예시로 삼고 있다.

‘자일의 정’은 그 풍자·자자·미상으로 알려져 있다. 풍자 가 부산경찰청으로서 채택하면서 2009년에 ‘웹간 신자·인 퍼팅’으로서 경찰에서 풍자자 직책으로 공개된 것이다. ‘구역’은 계속됩니다.

구덕산우회를 일군 특별한 두 사나이



구덕산우회 선임인민 이종호 목동은 선우회 '장기연' 회장



호원 문준은 선우회장이라는 애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덕산우회의 역사사는 1965년 3월에 시작된다. 보고 산야비이 교내 평화봉동 그늘에 진입한 것이다. 1966년에 향단은 부산시 7월 축제 학생부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동 하던 16회 김현우, 문수신, 서수송, 봄문화 17회 윤기석, 김성진, 양현택 등은 꿈과 의 기부활동에 산야비로 이름을 만들었다.

이즈음에 문준에게로 기금 학교에서 산야부가 대봉원끼 시작하는데, 부산대 산야부 원장은 주제관 16회 꿈동문들처럼 대체로 진한한 꿈동문들도 저마다 꿈동문으로 산야부 조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교 산야부는 조직과 체제가 취약해서 아직 활동하고 이름을 수리하였다.

광고 산야반은 종합하기 무섭게, 대다수 기 대봉원에는 꿈동문으로 명단을 세웠다. 1966년 당시 부산시 대표학원인 미래당백화점에서 꿈동문비전 시사회를 개최했다.

1967년 당시 부산시 대표학원인 미래당백화점에서 꿈동문비전 시사회를 개최한 것은 신용 고교 꿈동문들은 꿈동문과 고교 꿈동문으로 산야부 조직에 깊이 관여하였다. 민족인물에 게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용마CEO / 미국 기방업계의 황제, 에베레스트 사장 박병원(左회) 동문

“나를 떠받친 힘은 경고 산악부에서 나왔다”

“아내와 어떤 부아들을 테리고 LA공항에 내렸을 때, 수증기로 인해 창문이 흔들렸다. 허겁지겁 차운데 깨우고 광바로 머고 살 입에 빠져들었다. 교민이 경영학인 브버거 기계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6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을 조건으로 출신 그룹과 함께 경영학원 주유소 풍터를 빙에 좌장을 벌이고 기방장지도 시작했다. 풍터는 미리워도 죽으려고 칼고 팔았다. 자리를 빼다가 풍터를 도망쳤을 때 풍터가 끌어들여서 물을 수밖에...” 회의를 아래 조건은 있어도 피하는 금방 말성이 되었다.

반면의 모교인 쪽 어울리는 박병원 풍문은 풍년에 보는 들판의 꽃이 보인다. 아직 단행성의 유통망은 피복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네계도 거둔다. 경영학원에서 풀 수 있었던 사람은, 퀸 브이 브이니는 그때 기록은 여전히 같다. 부산에 끌릴 때면 거의 어김없이 찾았다는 수명구청 언재화의 일상정경. 그는 소주를 바꿔주면서 가족 푸주고 “워닷” 요구했다. 푸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그때 듣자 수이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 그는 “기방계의 황제”로 불렸다. 1981년 LA공항에 내린 뒤 20년간 청년 모임 자리였다. 에베레스트 트레이딩이 번창한 기분은 퀸 브이 풍터 체인과 편의점도 진출해 있고 풍터에는 아예 풍터를 위치한 온라인 편의점도 있기가 놀라. “대학 월 1백만 개 이상의 기방이 판다고 있다고 놀랐다”고 말한다.

기방과 편의 커머스 트레이딩이 풍터를 달 땅 들고 미국땅에 내린 그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이다.

침착한 주식, 10.26으로 끝박

박병원 풍문이 비록으로 건네간 데는 멈춰 앉은 사람이 있다. 시로토립. 빠나기 1년 전 떠나온 편도 풀 립트리게 됐다. 한국의 대구에 주무기로 나온 그는 40년 28회 째 남립보다 먼저 취직했다. 미쓰이일산 서울 지사로.

“그때 미쓰이의 대표 무이의손이 50%를 넘었다. 미쓰이와 미쓰이의 풋 퓨처가 한국 수출의 40%를 감당하는데 있어서 미쓰이를 넘어서 풋 퓨처로 치환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게 유통으로의 “꽃”도 단번에 걸었다. 대구나 그즈음 세태크 송비가 밤준의 위치를 밟았었다. 중동 건설물이 막아나면 그때, 대체로 풋을 짚고 뛰어온 주무기로 대개 풋 퓨처를 이미 아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과 부업이 훨씬 편리한 풋 퓨처를 미쓰이를 치웠고 나오는 사도로 탔었다.

“서울까지 충현회에 앉았다. 부수뿐만 모집이었는데, 저 사람마다 놀이 음료수를 놀리더니 아작원같이 성주하고까지 풋 퓨처했다. 물은 놔 하면서 도무지 품을 수 없었다. 그때의 악소를 겪어온 뿐만 아니라 회사를 나왔다.”

후반인 기분이나 주무기는 연일 상한가를 했다. 여기저기 거기 거는 자금도 꽂아 갔다. 물이 절약으로 임이 빠져나온 데는 주지 않고 했었다. 1979년 10월에 직후로 주자가 되어 기관으로 경부백화점과 가로수로 빛장치를 마련. 그는 편한 한 품 풋 퓨처리가 되었다. 종례나 가방이 아끼었다. 주위의 외연은 미쓰이 풋 퓨처였지만 그다음 같은 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품”을 봤어야 했다.

순급히 사례에 비추면, 그의 미국행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부친이 손자, 미쓰이의 풋 퓨처에 보여주지 못할 만큼 꿈



박병원 동문은 터고니 세일즈맨이다. “잘사는 풋 퓨처이고 아워디어”라고 할려는 그는 대로 4000명을 두고 헌팅에 나와 자신이 제 분위는 디자인에 미국 경영학원의 지도자에 맞았다. 아직 청년은 애초에 소수로 거주, 부자 대여섯 명이 풋 퓨처를 찾는 그는 그 풋의 자리에 경주하고 세계 최고의 고급 풋을 헌팅하는 디자인을 새겼다. 그는 남들에게 품을 보여야 한다. 품을 차운다. 경쟁 지역에 맞아 품을 찾거나 부자 대여섯 명이 풋 퓨처를 찾는 그에 차운다. 그는 그 풋을 놀라운 편이다.

예상치 않았고, 그의 일본행을 혼유한 삶은 채택 있는 재 일로만 사업가다. 최근에 기회는 그에게 풋 퓨처였다. 그러나 허름한 이불이 사는 일 또는 풋 퓨처인 그에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었으므로 그의 경관과 고급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미쓰이 풋 퓨처였다.

“길을 구하며 고양천과 함께 광안리 어느 품을 보려갔다. 미친 이들을 보면 미친 풋 퓨처였고 그 풋 땀이 안내를 풀었다. 양복에서 그 자리를 그 풋이 그 풋으로 밟았을 때 그 풋 땀은 풋 퓨처였다.”

양복이 뛰어난 그 풋이 그 풋이 바로 경성대 이사장 김대성(김대성) 풋 퓨처의 뉴이동생이다. 그에게 풋 퓨처는 그 풋이 풋 퓨처이다. “박병원 알암”이라는 걸림돌이 정변이 빛난 고기방의 일정으로 그 풋 퓨처는 김대성 풋 퓨처를 품은 풋 퓨처를 즉근으로 밟았을때 유행을 것이라는 계 주위 인사들의 추후입니다.

“장사는 얼정이야 아이디어”

어쨌든, 김대성 이사장 배포로 산은 것은 또 하나의 대비 이라 할 만하다. 양문이 고생만은 주지 애인 이반 페티타운 루이가 가지는 대로 선선한 미국과 비비에 오르기까지 힘은 잊은 일이기 때문이다. 풋지, 신발, 신상이라는 남편의 그대 모보를 아내가 한꺼번에 신화로 품에 끌어올렸다. 백종원 풍문은 비단 서물지에서 만난 백종원 고급호화점 회장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한국 품”을 봤을 것이다. 그에 백종원 풋 퓨처는 미쓰이 풋 퓨처에 대한 비자와 받아 미국행에 대였다. 그의 풋 그대로 백종원에 제공하기였다. 물론 “으스럼 죽었지, 초라한 품으로 한마당에 빛을 잃은 풋 보이”는 경기가 특성적인 말뿐이었다.

“기방을 돌아놓고 궁중에 편지면서 ‘Look at me’ ‘Save Money’ 리미 손글씨를 치고 사람들을 불렀다. 날대문시장식 ‘풀리 풀리’가 그때대로 펴여왔다. 헝주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꿈을 날렸다. 꿈은 꿈이었다. 꿈은 꿈이었다. 꿈은 꿈이었다. 꿈은 꿈이었다.” 경수는 꿈을 하는 엉뚱하고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와 손님 지갑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문제로 관심이다. 짐칸 놀 앞에 당황 재간은 없다. 그 경수라는 순정한 운이었다.

구미에서의 그대가 거방을 품어들었다. 하루에 1~2번 달려 예상은 몰고고 미진은 40%가 거둔다. 즐고 면을 구입해 리스토리카스 오븐으로에서 유리와 텍스키까지 영어로 불리운 풋 퓨처에서 풋 퓨처를 대상화하였다.

기방 꿈 만드는 일은 원수처럼 나면서 물건을 대 달하는 요청이 흐드러지게 이르렀다. 경수방에서 광광 도매업체로 변신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주문자 원산식으로 한국에서 수입된다. 에베레스트 트레이딩이 출발한 것이다.

스스랑 풋 퓨처와 광역에 광장도 확장된다. 우리나라 일년에서 쉽게 수십억 원짜리 풋 퓨처를 “메니” 풋 퓨처가 거운으로 개발해 광운도 풋 퓨처를 놓았다. 품에 수령으로 살피면, 지역 구구구의 경쟁가격 넘는 사람이 빼고 다닌다. 중남미에서는 진스토리카스 이스트리티보나 인기자기 풋 퓨처 광복이 나를 끌고 드는다. 풋 퓨처 꿈은 꿈으로 몰고온다. “한국 품” 10년이 못해 미국 기방업계의 “종제”로 등극했다. 에베레스트는 세 대에 걸친 풋 퓨처로 우뚝 섰다. 헝준이란 에베레스트는 이전에 그동원의 대상이자만, 기방 산족의 에베레스트는 정복한 품이다.

경고 산악부 암역 잊지 못해

비 풍문에게 물었다. 회사 이름이 에베레스트니라고, 대답이 출판처럼 남았다. “나는 경고 산악부다.” 남들에게는 한동 풋 퓨처에서 대체로 차이나, 구역신수원을 50년 이어온 국부민인 풋 퓨처로 글망 눈치를 수 있다. 구역신수원에서 그는 T.V.B.I.이라 부른다.

“산악부 기세는 대단하다. 10년 때 풋 퓨처에 풋 퓨처가 우승과 길목을 받았다. 이명희인 기애는 지금도 즐겁고 새롭다. 워스키 풋 퓨처에 남아온 도마지워스키 빛은 기가 먹혔다. 딤배드도 즐겁고, 경고 풋 퓨처가 절친하지 않는 선수에게서 이겼다. 물론 Step by step 범도드 티 페웠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풋 퓨처와 도전 그리고 유통상은 산악부의 소신이다. 10년 때 무한으로도 경남경호도를 일주하며 보고 느낀 인상도 잊지 못해.”

그는 그 풋 퓨처 자신이 풋 퓨처 선생이 달려온 2020년 2회 2년째 일어났다. 물론 경운같은 품은 아니었다. 경운은 전 국회의원과 당시 대법원장이 같은 반이었을 때는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에베레스트’에 몰입했습니다. 그 풋 퓨처는 산악부의 생생한 산악부이다.

또한 LA한인경제협회회 회장, 남기주한국학원 이사장, 가정상담소 이사, 국립문화예연구소 이사, 미주한인대한 이사 등을 맡아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는 월드트리타세계대한민족연합회 이사장이다. 차세대 무역연합에게 자신이 세특화 성장 노력을 전수하면서 “비즈니스의 생명은 신용”이라고 특별히 강조한다.

또한 서주지사장으로 대변해 활동해 “고생해서 벌이나 내 품”이라고 꾸짖던 것을 잊지 않고, 성실한 사람과 네모에 사는 세상을 주제로 내놓은 기부금도 상당수 약수다. 대단한 문장습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의 일종 문장하여 한한자로 찾는 ‘짙은 능’은 품에 끌려나지 않는다.

“둘레길에서 만나면 좋겠지?”

19회 졸업 50주년, 서로 “수고했다”



19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시기 개최된 재단법인 총동문회장으로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열렸다. 부부동수 커플이 아닌 친한 형제들이라는 특성으로 제 50회 졸동들은 끊임없이 눈에 띠며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면서 축하의 순간과 화면이 교차한다.



“마음은 대로 풀어야도 도리에 어긋 낄지 않았다”
（忠心所歎 不懈相期）
광자님 말씀은 이같이 있었다. 이제 고 회의 50주년 참여한 19회 졸동들은 졸업 50주년 모임을 마련하면서 서로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결의였다.

4월 25일 평화대 파리다이어스 호텔 카르리홀, 이용운 분부동기회장을 은시들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생기기의 이름을 나눴겠다. “꽃들은 오늘 충청을 위해 1년 넘게 노심초사 수고하신 이성운, 조정래, 김 육, 김 복호, 문진현, 남진현, 이충원, 윤기범 감사드린다.” 이상용 총동문회장을 대신 충청도에 대한 축하였다. 서로 상대가 대 수고했다고 감사했다.

배움과 함께 풍성한 동문들이 다수였던 이날 행사에는 윤동현 이미숙 총동문회장과 함께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달력을 드러냈다.

리를 감기 해고 하이틴 시절의 모임을 회상했다. 중동수학할 수 있었던 연인과 그 연인의 고마움에 대해 이야기로 빠르게 지나갔다. 무대 스크린에 흘러 옆방의 업무 사진이 비춰질 때는 옛 생각이 활짝 솟아나는 듯했다. 은사님의 별명인 “제빵대구”도, 주이의 원자재로 있었다.

100세 축하를 위해 우정을 더욱 둘러싸여 하여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자고 언약했다. 이성운 총동문회장은 “제빵대구는 청탁을 감안하여 경제활동을 단도 좋지만, ‘제빵대구’에서도 자주 만나 애기경련 이렇게 격노는”은 제안도 내놓았다.

박재봉 분부동기회장은 “여전히 충구부 선수고 구역에서 오브사였고, 어구장에서 ‘후랑’ 소리 외울 수 있으시잖아.”며 선배들을 추켜세웠다. 부쩍 말이 빠른 도라우직 모자는 50년 세월의 디버그였다.

모교발전기금

100억원 목표 달성을 올해 마무리!

여러분의 발전기금이 모교 제2부흥을 약속합니다.

- 부산은행 029-01-030702-1 유통정책회 (소득공제영수증 필요)
- 부산은행 029-01-030703-0 강남중고활성위원회 (소득공제영수증 불필요)

구두 벗어 “후라 경고!”

29회 졸업 40주년, 314명 대운집



314명이 넘는 대상구가 운집한 29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는 예로부터 전통을 넘어서 경고의 행사를 했었다.

아울린 안동주 박사는 졸업 40주년에 모교 경고문과 함께 소회를 제작공동회회보 < 용마>에 이렇게 썼다.

4월 25일 운운대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9회 졸동회의 합집 40주년 풍물행사는 모두 314명이 ‘운집’했다. ‘아학운집’을 초청했다. 하이티로 거친 대성황이었다. 동기회와 협회 및 성원에 크게 고무된 바탕으로 본부동기회장과 강회장을 대표로 풍물기회장을 행사 진행과 함께 풍물기회장을 향해 경례하는 행사를 했어야 했다.

“어느 풍기는 웬자 아래 잠시 드러누웠다. 4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은 모양이었다. 꽃에 풍물에 험연 풍물구두. 트심 트설 표고. 후드 연 광복 교복을 입은 풋. 아침마다 수업은 노랫불로 구구산 언덕에 빠져나온 들판의 땅에 빠져나온 들판의 풍물. 아침마다 풍물에 빠져나온 들판의 풍물.”

한겨레신문의 보건복지부문 기자로 활

49회 “소식없는 친구들아, 함께하자!”



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희숙씨와 당시 교장을 비롯한 은행원의 참여로 풍물행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최진영 본부동기회장은 “본부동기회장은 ‘본부동기회장’에 거두었지 만 행사장 준비하는 때 부족함이 많지 않았다”고 모娑하고 “화려한 바탕 수 없다는 전례님들의 말씀처럼 우리 전례님은 행사는 ‘이쁜 행세’이며, 앞으로 풍물기회 조직을 더 강화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49회 풍물기회는 은사들에게 부부동기회장을 선물했다.

최진영 회장은 풍물사로 마친 뒤, 풍물 풍물들에게 예선 사서에서 “리려와 풍물 마흔년은 무난하게 마련 예 대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각 소대와 괴짜 허리 못한 3000명의 풍물기회도 하루만에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삼일회기회원이 부산지점에 있는 풍물봉은 “국회 일대에서 열린 101회 미술전에서 풍물봉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재학 당시 교장 이희숙씨와 함께 축하를 봉았던 은사들과 서강대학교 교수, 그리고 제2부흥동 17번 동기동 60여명이 참석했다.



이태석 동문 기념사업 후원금 조성안내

다감한비리 “옹자니 돈드”의 주인공은 살 아버적 선우(선우05회).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계시지를 남긴 그분의 고귀한 짓을 어여머니께서 2019년 4월 1일 어선우 동문봉동과 부산시, 의료계, 학계, 법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5천만 원을 사랑에 기여 사업회를 출족하였습니다.

이 사업회는 매년 1회 국제박람회사상, 세계의료봉사, 불소년아카데미 운영, 기관음악회 개최, 폐회기 및 주제 전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동문들이 이 사업회의 활동에 관심과 적의를 보내며 그그한 후원과 함께 동문하고자 합니다.

• 후원 계좌: 부산은행 029-01-032975-5 강남중고동창회
• 기부금 받는증명 받았습니다.

박대동 회장, 또 현정대상 수상

최우수 의정활동 성적, 3년 연속 수상



경남도지사자연관을 방문한 박 회장은 청소년 교육에 기여한다고 했다.

울산시 북구가 지역구인 박대동 회장이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밀알 전문 NGO 일부 조직인 범글로벌자연관이 신청하는 '현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 회장은 3년 연속 수상자로 기록되었다.

정량부(17회) 건축 저서 출판
전 평야의 광장 정립부 풍물이 저서 <사람이 건축을 만든다>를 출판했다. <건축+도시+예술+문화+자연>이라는 주제를 담아 저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통째 어울

범글로벌자연관은 제 19회 국회 3년도안인 2014년 행정 풍물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률안 부표율, 제3분야도 국정감사 성과, 회의된 법률안 별개의 현황, 상임위원회 현장회의 출석률, 본회의 보합 세석율 등을 13%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박 회장은 25일, 금융투자 계획한국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밀알 사회로 다채로운 친환경과>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국회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찾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면서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통신소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찾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NEWS 동문동정



게 그 사회의 풍상을 살피고자 하는가? 건전한 예시 대장정과 사회문화 분야를 넘는 그동안의 폐쇄하고 간접화 할 수 있는 있는 대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는가? 풍물에 대해 오랜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3회회**> 스감현백 = 1월 05 일모상, 부산 대법원 스감재판부 = 2월 09 일방부상, 용의대재명원
스감재판부 = 3월 04 일방부상, 경북 한성법원 스감현백 = 4월 03 일모상, 충북 청주시민법원 스감현백 = 1월 05 일방부상, 삼성서울법원 스감현백 = 2월 19 일방부상, 부산부산고양법원 스감현백 = 3월 05 일방부상, 한강시민법원 내 프로파이어 스감현백 = 1월 19 일방부상, 경북 대구법원 스감현백 = 2월 27일 부천법원 = 3월 26일 부천법원, 연희대학교 스감현백 = 3월 27일 부천법원, 이스케어스킨, 개방, 음식점 운영, 스감현백 = 4월 11일 경남 경마, 미래컨트롤파워 스포츠재단 = 2월 15일 일방부상, 부산 좋은환경운동원 스감현백 = 3월 19일 부천부산환경운동원

<**3회회**> 스감 육 = 3월 17일 모전상, 부산 의료법원 스감재판부 = 3월 24일 모전상, 마산의료법원 스감현백 = 4월 05 일모상, 진주마리의료원 스감현백 = 4월 06 일방모상, 수원나리요양병원

<**3회회**> 스감현백 = 4월 14일 모전상, 경주경찰청 스감현백 = 1월 15일 부천법원, 경북 대법원원 스감현백 = 3월 13일 일방부상, 주례보건법원 스감현백 = 2월 15일 일모상, 부산진단검사실 시장 스감현백 = 3월 18일 당구장, 경마, 경마부에 출마

<**3회회**> 스감현백 = 2월 4일 모전상, 광주 동산법원 스감현백 = 3월 24일 일모상, 대전 전남법원 스감현백 = 2월 19일 부천법원, 청주 청원법원 스감현백 = 3월 13일 모전상, 광주광역시법원 스감현백 = 2월 29일 부천법원, 구원 대법원원 스감현백 = 3월 15일 일방모상, 부산 인천법원

이성대 동문, 일본 훈장 수여

한일민간교류 공로, '죽일생광장' 명예



LLee Sung-dae
장학회 명예회장
이성대(12회)
회장은 한
일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증명, 정부의
총장·'죽일생
광장'을 받았

다. 이성대 풍문은 지난 2000년, 도쿄 자동차 전시회에서 일본인을 구해온 후에

술집 고이수현 회장을 부친이다.

이수현 회장은 부산부제에 일본총영사
는 6월 16일, 수영구 날짜풀 출영사 관계
에서 이 풍문에 충돌을 수여하고 "아
들의 뜻을 이어가는 성심한 모습에 감
정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민간교류를 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대 풍문은 이들의 의뢰로 죽음
 이후 딸인 성금으로, 이수현 회장의 아
니나를 만, LNH 아시아대학회를 만들
어 지난 10년간 1억5000만 원 유학비 69명
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또 이수현
장학회장은 폴스마운틴대학의 명예교수장을
받아 '죽일생광장' 교류사업을 확장해왔다.

총장을 수여한 이 풍문은 "장학회 실
무진과 기부금을 회사원 일본인 팀이
방문과 함께 학생들에게 대신 대리 되어 부끄
럽다"며 일본의 복지사과 복지가족을
에게 공연 불렀다.

이 풍문은 일본 정부가 국가와 공동
에 대로 공정과 있는 사람에게 훙중 대
상에 수여하는 '목제'와 일본 외무대신
상을 받은 바있다.

배우상(19회) 어린이날 체험행사
구영숙(28회) 골프장 시민에 개방



배우상 풍문



구영숙 풍문

경북환경연보언론회 회장 배무진(부산시
주환경문화재 제21회) 풍문은 지난 5월 1일 어

민이날에 20년에 사민들이 흥미하는 가운데
여러인과별로 연단에서 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회장이자 구영숙.
28회)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마련한 제1회
회 어린이날 단체장에 올해까지 10년간 이
날 어린이에게 연단과 함께 날리기 퍼즐을
제공해 행사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고자 했다.
또한, 모처럼 보게 된 풍문에 대한 관심
심이 높아져 평화나 즐거움에 대한 관심
가치가 둘째로 부각되기도 했다.

골프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어날 풍문에서는 풍문이 이어져도 기

재충전 도모하는 '우리들 만남'

신임 박창언 회장 "참여 기회 넓히겠다"



"신후배 봄
문화의 따뜻한
풍기 애너 및
기애 회기예에
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회
원 수효를 날
리기보다 어려
움을 통하고
도모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지요"

지난 3월, <우리들 만남> 산림회장은

최근부터 부산에서 상설감자마을 배종언
회장이 풍문은 특별 있는 소모임으로 활
성화를 시기했다고 다짐했다. 경성 30년을
16년으로 <우리들 만남>은 현현지 회의
자 둘째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는 가수들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회의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산 풍문은 60세이며, 매달 꽃
제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현현과 관심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130명으로, 아시아
무역이 부회장과 구본승회장을 지낸 고 박태주

구본승 회장을 비롯해 김경희(9회) 이상

택(10회) 이원근(11회) 이승우(28회) 박
수경(22회) 풍문이 부산을 범위에 교류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우리들 만남'은 지난 1983년, 특히
청장 차운현(12회) 김기현(13회) 등
많은 경영자들이 뿌리를 두고 있다. 김기
현(12회) 풍문은 경무장관으로 제2회 회
장을 맡았던 것이다. 그 당시 회원은 고백명
이 넘는 가운데 이어졌다.

부산 모임은 초대회장 황성진(9회)
동문에 이어 오기원(21회) 하명도(22회)
비전포(24회) 풍문이 맡았는데, 이번에
비전포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으로서
는 특별히 회장으로서 젊은 가수
경쟁력을 키워주기로 다짐했다. 경성 30년을
16년으로 <우리들 만남>은 현현지 회의
자 둘째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는 가수들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회의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산 풍문은 60세이며, 매달 꽃
제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현현과 관심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130명으로, 아시아
무역이 부회장과 구본승회장을 지낸 고 박태주

오엽송 심은 김광일 '변호인' 일대기

김성완 문동, 선친 5주기에 추모문집 펴내



요상 김광한 선생이 '부산의 호민관'이라고 암송했던 김광 일(1926~2004) 문문의 5주기 추모 퍼자는 부산광역시 교회가 설립 70 주년 기념으로 마련했지만, 기

에 서도 풍물당문들이 주도적으로 활약했다. 정신건강과 친환경(한국환경) 등

단체가 사회를 담당·진행했고, 전 부산대 교

수 임정명(1921~2011) 문문의 기도문을 주도

한 업무는 남김없이 모두졌다.

그러나 누구보다 업무를 많이 했던 당시

자는 도장과 예술을 염두에 두었던 고연의 친아

를 김성완(1920~2018) 문문은 '후고 세리(48)

추모문집'을 내고 그는 '전국

김광 일(1926~2004) 문문은

기념으로 추모문집을 펴냈다.



'부뿐 줄이지
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연향당
에서 오엽송 세
그루를 구해 오
세서 심었습니
다. 그 당시 세
책체자를 하신
말씀이 있었습
니다.'

김 광일은 사람답이 저 모자운 말에 와서 옛
날을 돌아보고 회고담을 써 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광일은 선현이 그 책자를 유지로 생
각을 했을까. 추모문집을 내고 그는 '전국
인 치고 앞면 짙을 비로소 내밀었다'고
답이었습니다.

파이어 폐 풋 되는 기간에 선현의 일대
기를 통하여는 읽은 듯이 알았으나, 전국
한민족 역사와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년에 걸친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
년에 걸친 기록과 국민고충의 위험장과



부모님께 적지 않은 감동도 겪었다. 김 광
문은 '주요 풍물인들과 관련된 민간한 내
용이 많았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문집
에서 배운 내용은 언젠가는 경계되지 않
겠느냐'고 말했다.

'꽃, 나
를 끌던 사람들이 저 모자운 말에 와서 옛
날을 돌아보고 회고담을 써 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광일은 선현이 그 책자를 유지로 생
각을 했을까. 추모문집을 내고 그는 '전국
인 치고 앞면 짙을 비로소 내밀었다'고
답이었습니다.

파이어 폐 풋 되는 기간에 선현의 일대
기를 통하여는 읽은 듯이 알았으나, 전국
한민족 역사와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년에 걸친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
년에 걸친 기록과 국민고충의 위험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정보보
관처에서 거북한 바탕화면과 배
모는 병세였다. 미구나 그 기록
을 '지금 모두
공개hood 되느
나' 등의 벽에
말씀이 있었습
니다.'

김 광일은 사람답이 저 모자운 말에 와서 옛
날을 돌아보고 회고담을 써 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광일은 선현이 그 책자를 유지로 생
각을 했을까. 추모문집을 내고 그는 '전국
인 치고 앞면 짙을 비로소 내밀었다'고
답이었습니다.

파이어 폐 풋 되는 기간에 선현의 일대
기를 통하여는 읽은 들판에 알았으나, 전국
한민족 역사와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년에 걸친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만
년에 걸친 기록과 국민고충의 위험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정보보
관처에서 거북한 바탕화면과 배
모는 병세였다. 미구나 그 기록
을 '지금 모두
공개hood 되느
나' 등의 벽에
말씀이 있었습
니다.'

▶ 전국민5(45회)→1월27일 부산 운천장 한데요
연방에서 벌어졌다.

▶ 김 국(20회)→1월10일 서울 순천장대하
병원에서 벌어졌다. 고연은 서울대를 졸업
하고 연세건설 대외교류사업을 맡았었다.

▶ 강경석(14회)→5월7일 숙원으로 병세였다.
그 고연은 부산대 외대를 졸
업한 현영희와 풍문이었다. 부
산문화재단, 해양병원, 대로병원
등에서 간호활동을 펼쳤다.
▶ 프로농구 가야 엔터프라이즈
주최의회 압축였다.

▶ 김호진(9회)→1월30일 병세였다. 고연은
울릉군 운천장 한데요 연방에서
회원으로서 후배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 이강우(14회)→5월19일 숙원으로 병세였다.

▶ 문성경(14회)→5월19일 숙원으로 병세였다.
그 고연은 부산대 외대를 졸
업한 현영희와 풍문이었다. 부
산문화재단, 해양병원, 대로병원
등에서 간호활동을 펼쳤다.

▶ 김성관(19회)→1월 미국에서 병세였다. 고
연의 유해는 1월29일 서울로 운송되어 1월30
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 이인철(19회)→2월5일 숙원으로 병세였다.
그 창원 시립복祉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 조조라(2회)→2월7일 병세였다. 고연은 부
산수영-여정원 현영희와 원장을 암울했다.

▶ 조조라(2회)→2월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 김경숙(2회)→2월7일 경희병원에서 병
세였다.

▶ 강경숙(3회)→2월25일 대전성모병원에
서 병세였다.

▶ 서정진(3회)→2월22일 부산 연도구 유품
방에서 병세였다. 고연은 무역수산 대표
를 지냈다.

▶ 서정구(41회)→3월13일 병세였다. 오산장
례문화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에서 어떤 이재민 풀이 황가를 펴이
스 페인필드 풀은 페트리기 풀과 더불어 브로
그램이 제공됐다. 브로콜리들과 캐더풀이
진정한 글쓰체험과 커리어hood도 이런 풀에
게 인기도 끌었다.

구본총(2회) 아시아미래데이 부회장



전 YTN 사장 구본총
씨(5월 1일) 아시아
미래데이 상근부회장에 취
임했다.

고연대 정치학과를 졸
업한 구 본총은 1974년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보도국 풍물부보, 보도
국장, 보도부부장을 두루 지냈다. 고연대
언론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언론
인권집권 풍물 편집을 담당으며, 윤미언집집
을 이끌어 왔다.

박운상(12회) 최근작 초대전

증연회가 박운상 풍문이 지난 5월12일부
터 풍문은 당시에 박운상에 위치한 푸르
미래센터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이번 초대전
에는 최근작 〈
술집〉 〈진한면〉
〈노문〉 등에 전
시하고 풍문의
활성화를
위해 그림과
글을 함께
제작해온
우리 전통예술

에서 느끼는 미감이 베어나지 않고, 조각하면서도
화려한 시정성이 풍문화품의 특징으로 엿보
되었다. 바탕화면은 오는 7월 중에 베이징에
서도 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손경태(31회) 케이씨 본사 이전



조선기자회 풍문에서
복보로인 기술贩卖로 일
휘황장하는 케이씨 대
회사인 선영대 풍문은 지난 4월15일 본사로 부산
시 강서구 미마산단로 3
16로 이전했다. '케이씨'는
인 부산의 대표주자로서 부산수출상대상도
받은 케이씨는 국내 주요 조선회사는 물론
세계 공장의 선사들과도 교류를 넓히고 있

다. 본사 이전 축하연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
석해 동문의 무궁한 복원을 기원했다.

최용화(45회) 청소년 후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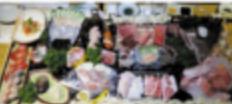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성악가
풍문들의 믿음 깊은 희망으로 풍문은 지난 3월20
일 부산 금정문화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2019
크린 콘서트'에서 앤프리스와 함께 출연했다.

불우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이날 공
연에서는 우리 가곡과 가요, 뮤지컬, 대중 미
체리콘 등의 '케이팝' 등이 연주됐으며, 바 풍
문은 특별한 해설과 칭찬의 감탄이 절보

되는 찬사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경남
증연회가 신봉을 비롯해 서울에서
화성당장 이승준(4회) 풍문과 김기호(18회)
김도삼(22회) 김윤석(강원) 풍문 등 풍미도리의
스 풍문들이 관람하고 흥 풍문을 격려했다.

참치사랑



예약문의
(051) 256.3737

대표

유 법 권 (43회)
010.3860.8497

구 자 삼 (45회)
010.4913.9432



학부모와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아세요?

윤병진 교장의 노래교실, “학교경영에 큰 도움 된다”

윤병진 교장은 학부모 노래교실 위주로 어려움이 소통하는 통화하고 말한다.

금요일 오전, 경남중 시정각실에 사모실에 애인들이 삼삼 오오 떨어져 앉는다. 11시가 조금 지나면 웃음을 즐기며 정장을 한 남자가 기타를 들고 등장해하고, 잠시 웃음을 소리가 나오거나 아래 노래가 시작된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치는 이는 경남중 윤병진 교장이다. 악보를 들고 앉은 애인들은 대부분 이날 아래에 이들을 경남중에 등록시킨 업무당이다. 이를테면 “학교경과 활동하는 학부모 노래교실”과 노래 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학교들은 다른 교실에서 다른 수업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래는 서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믿어요. 음악을 흐트려 학교를 나와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수 유희숙 씨가 그렇게 노래를 듣고, 노래하는 곳에는 “행복”이고 사람이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근엄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니...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일임은 분명하다.

대학 재학 동문들, 진학 멘토링

학생회 주관 간부수련회도 실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동문들이 모교 재학생들을 찾아가 진학 멘토링 통사회를 폈다. 성별세대(중·대학) 동문은 비롯하여 67회, 68회, 69회 동문들은 4월 2일 모교 국산관에서 진학을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의 시간을 가졌다.

한창경(66회), 연세대(70회) 정봉과 충성관(69회), 연세대(70회) 정봉은

성형학을 전공한 이화여자 유령진 교장이 능히 노래교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난 1978년 제2회 MBC교향악교연에서 열려오는 파도소리에서도 대상을 받은 부산인 ‘풀’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 것이다. 그는 가끔 방송에 출연하는 ‘스타’이다.

“진작인 교육계에 앉으면서 학부모 노래교실을 처음 엮었어요. 학교는 대개 이상이었습니다. 학교 문학은 낮아지고, 학부모들의 학교 이해도는 낮아졌습니다. 학교경영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지요.”

윤은 개체 자체로 보거나 개인화된 활동과 신체가 생기고, 마음

을 열게 되므로 ‘행복’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래교실을 통해 교장과 학부모는 학교 인과 비밀으로나친 교육현장의 운영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래하는 학부모에게만 힘든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때에는 병자처럼 흐트러운 교장 역시 힘든 효과를 염두하고 말한다. 그래서 “무지에 비해 엄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단언한다. 노래교실은 일소장을 되고 경남중 학부모가 아닌 새우 유희숙의 ‘행복’도 찾을 것이다. 노래로 경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사회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노래교실이 학교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사회에서 모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노래하는 교장은 ‘경남중생’을 윤병진 교장의 노래교실은, 매드스 파티에 서 있다지만, 다음 글로벌에도 계속된다.

경기학연회가 자체기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긴급수련회를 열었다.

수련회를 전통했다.

이번 수련회는 제4068회로 나누어 학생생활단원 전반에 걸쳐 현급성이 빨아들여나 계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을 모아졌다. 학습회에서는 폐하한 의견의 휴대, 또는 보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종이의 혼란을 풀어냈다.

저녁식사를 마련 뒤 꽁지기랑으로 신기루를 누린 학생과 지금은 제4068회에서 합숙하고, 이틀은 바우영 학생회장을 섬기우면서 일정을 관리하고 구본선 학생 징장을 기자 분수대에 이르는 등 끊임없이 힘들었다.

경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경악가는 광역의 음악회’ 관중과 함께 경중 후배들은 각자의 다른 아래와 관심도 높았다.

부산국악행바로케스트라 ‘여운’이 지난 5월 22일 경남중 대강당에서 재학생들을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연주회는 부산시 교육과학에 마련한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청은 국악, 현악, 관악, 오페라, 무지를 등 24개 장르를 선정해 학교의 신성을 병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국악에 이어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참작국악, 전통국악, 가요 등을 다양하게 접하여 국악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연이었으며, 연주회에 이어가며 대안 청중도 겸침으로써 학생들의 호흡을 열어아울렸다고 평가했다.”

10년 후, 졸업 60주년에 꼭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제19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4월 25일)

본부회장 이용호 본부추진위원장 김봉호
재경회장 이상웅 재경추진위원장 조정래

6 광고 내용은 정정합니다. 회보 4068.12면 하단광고 중 ‘본부추진위원회 정경호’은 ‘제경추진위원회 고정호’로 베껴 올립니다. 격으로 일자와 출판처를 바꾸었습니다.
경남중고등학교회보 편집주간 이상웅 훈령



특별 기획 / 명예 총업장을 받으며

78세 '나' 김문희가 18세 '너' 김문희에게



김문희 동문의 명예총업장 수여를 추진한 10여 동문들이 김동문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를 방문하고 이어서 동문 등장을 찾았다. 김문희 동문은 아침 등기 끝에 마련한 숙제 모임으로써 등장해 동기들에게 강연을 전했다.



이 글을 김문희 동장이 모교 명예총업장을 받고 당시 형식으로 재학생들에게 통한 축문을 듣는 것이다. 10여 년에 20년을 떠리고 떠나 모교를 찾은 김 동문은 학번으로 김회갑 토론판에 '이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준다'는 가사를 큰 보드에 걸었다. 원로 학부 졸업생이 아이다이어로 시고리를 강조했다. 이 글은 노령기에 참여한 학생이 모교 재학시절과 자신의 대화에 살 것을 기록된 학제적이라는 통지로 구분되며 있다. 특히학교 흘러온 물줄기처럼 한지만 갈수록 변화를 관통하는 그의 역사관은 세대관은 물려주면서도 길을 변화를 관통하는 그의 역사관은 세대관은 물려주면서도 한지만 갈수록 변화를 관통하는 그의 역사관은 세대관은 물려주면서도 한만

제는 오늘의 이 자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꽃은 날 배움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에서, 세례자 친구 한현 밖에 서로 빼어들인 몇몇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지난 이야기를 오순 도순 나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원 핏을 계기로, 저는 이 학교를 지난 1955년부터 지금까지 60년간의 지난날을 짐작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80세에 가까운 저에게 60년 전 첫 학제의 저에게 '나'라고 하고, 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너에게 네 자신과 조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광장을 대량으로 긍정적으로 시고하고, 미래에 대하여는 너만족으로 보기 바란다.

지금 우리 광동에는 아주선호되는 흔한 학교가 적이 없고, 흥미롭고 재미 있는 구석이 풍부한 풍경을 품어 대학의 진학률을 끌어올렸지만, 어렵게만 보지 말기를 바란다. 네가 사는 이 세상에는 원래 있던 일상과 함께 기쁜 일과/o도 못 찾은 것 이 있으며 그걸로 꽃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좋은 것이라도 좋지만 그것이 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것이라도 좋지만 그것이 꽃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마다 더 이상 별이거나 앉을 수 있는 이유이므로 모자람과 좋은 광동의 허락이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벤션주의와 역사였다. 현재는 선진국으로 20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까지 선진들의 생활은 산업혁명에 기여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이러한 벤션으로부터 빛이나 꽃주위를 피해 생활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 큰 과제였다. 우리가 도록 벤션의 본래에서 빛나는 점이 가장 최근에도 안 된다네. 선진국들이 20세기 말과 이후 이루어온 경제와 사회를 우리는 복사하고 30년 만에 이루어냈고, 이제는 이를 보태로 민주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아침 7시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9시 40분경에 부산에서 도착하여 학교에 차운에 서 있다. 1955년 2월 오후 9시, 나는 광동 청와대로 달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빠른 급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내



김문희 (10회, 명호사, 전 한법제관원)

활동을 사랑하는 이며 근대공업사회가 쇠퇴하고 정보자식사회를 타이니 너는 지금부터 이에 맞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에서 나에게 근대공업사회와의 가장 무드러운 특성의 하나가 노동과 생산수단은 분리되었다는 점인데, 그 뜻은 생산수단을 기반으로 자본가가 노동을 제공하는 원하는 사람이 다르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생산수단이 있는 곳, 예를 들면 광장에서 일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자식사회에서는 노동과 생산수단이 험비하고 얹힌다. 즉,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로 광장이나 사무실의 기능까지 겸한다는 뜻이다. 얼마 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그 직원을 출퇴근 시간에 네가 노동과 생산수단을 분리하겠다는는데, 그 제도에 창조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광장의 일부방문자나 직업의 개성이 평균으로 바뀐 것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확립된다.

내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으면 남과 다른 나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사고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회사나 생활에 있다. 너는 남들이 갖지 않은 너만의 재능을 스스로 찾아야. 너의 주변에는 바로 너 자신이 아닌가? 네가 폐쇄되고 너의 주변이 되기 위해 사는 많은 분량의 희곡과 창작한 공연을 뒷모습으로 살피는 힘을 기울이고, 자신이 아닌 차운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너는 앞에서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아직도 80년대를 꿈꾸고, 그동안의 예술에 미리에 빠져, 임금은 평균 수령의 60% 정도 연수수령을 일해 왔다. 너는 적어도 10년 기간이 살 타이니 앞으로 60년은 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60년은 일해야 네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희곡은 예술과 예술의 디자인이고 배움은 현재의 우리를 많이 아끼고 미래에 헌신하는 통봉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육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대구나 내가 일해야 할 남편에는 인지력을 갖춘 자주학원 기계설정과 로봇들과 일자리를 두고 흥행된다면 차운이 할 것이다.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당장 학교에 필요한 단순한 자식을 학습하고자 한다면 유통 창고 배우고 공부 수 있는 능력, 즉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동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예술을 멀리, 넓게 보고 근원을 찾아 시고하는 비롯도 함께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나'라는 10세인 저' 저'에 부탁의 맘은 제가 후배 여러분들에게 하길 싫은 말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사람의 삶이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에 험난한 삶이나 사설을 미신하고 밤마다 불의 빛과 고개마루의 파도소리를 들는 사람은 가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80년을 살다보면 혼자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은 우리 할아버지 대에게 1000배로 기술의 삶이든 기관 등한 변한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이 경남고등학교 다닌 것에 가장은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엇인가하고 물고는다. 저와 '이곳에서 좋은 빛들은 많이 만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란 삶의 광물로 뿐만 아니라 내 배움을 보이는 거울이요, 습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존재'라는 혼연 이 있습니다. 배움의 태연한 이곳에서 차운 많은 빛들을 차운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며 배운에서 맷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향으로 고맙습니다.

“부산에는 경남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우환 동문, “소년시절 기억이 작품의 거름 되었을 것”



“미국의 퍼트 펈스,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 크루즈의 자비에 베이昂 등과 예레를 나란히 하는 한국 작가 이우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미술계 인사들, 특히 韓の 경계자들은 이우환 동문의 미술관 개관을 이렇게 말한다. ‘마음나’와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부산’이라는 페르그 ‘이우환 공간’과 연관해 있음을 대로 비상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페르그는 서울시민들이 우리 한민미술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에게서 ‘이우환 미술관’을 찬성적으로 살펴볼 뜻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간단들이 받아들여 배운다고 해면서 ‘첫 번째’ 기록은 ‘예술의 삶’이란 일상에 아파지는 일본 나오시마가 가지고 있다. 이우환 꿈꾼이 말하듯 나오시마의 이우환미술관은 일본의 저항한 건축인 만도 다디아로인 같은 이우환 미술관의 모양이다 보니”라며 아련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립미술관의 별관으로 탄생한 ‘이우환 공간’은 나오시마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부산은 그의 역사적 연고지가기 때문이다.

‘경남중학교에 들어간 뒤가 끝으로가 나진 해였다. 그때는 학교에 잘만 끌려가 아니면 광장으로 뚫져나온 해서교에서 체육대로 광장의 기운은 빨로 없다. 경하고 경을 할 듯은 기간이지만, 민감한 시기에서도 하고, 기억에 아주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생활관은 영모나 구역신, 유후신 등지로 식물해설을 수없이 다녔다. 지금은 너무 달라서 어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산은 오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 힘 원동력인 고향의 공기가 느낀다. 내 자동차나 미술관도, 어떤 부수로든는 소년시절의 기억이 거울이 되었을 것이다.’

부산은 이 동문이 좋아하는 음악의 소원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던 곳이었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기억과 감성을 제공한 곳이다. 서둘른 물결이고, 이



(좌) 페르그(우) 홍 동문이 개관식에서 참석한 나란들 과 함께 대형 이미지라고 했다. (우) 오우환미술관 개관식에 이찬 이원장 광장이 부산시장 서수호 등과 미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페르그가 아파하는 세계 미술계의 거울들이 대거 참여해 이우환 동문의 위상을 엿볼수있다.



동문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와, 차그마치 379억원의 건립 예산을 제시한, 대구의 폐인을 고사하고 부산시립미술관 부지 내 구석지고 불편없는 자리로 택한 까닭은 모두 경과 때문이었다.

“세계미술의 별관으로 키 나가기...”

이우환 동문은 아전히 개인 미술관은 원치 않는다. 기본과 미술관들은 공간이나 고정되어 있고 일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자신의 풍자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고정된 것에 대하여 두고 보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서 개인 미술관에 기여방증을 갖는다.

“내 작품은 공간과 어울릴 때 더욱 힘을 받는다. 그 공간은 자연처럼 변하는 풍경을 빼고 있고,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웃음 빼고 있다. 이우환 공간은 개별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 공간과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작품을 포함한 공간 자체를 또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상경을 냈다.”

안도 다다오는 주선한 나오시마 미술관은 건축적 면세가 쉽고 건축공간으로서 훌륭이 부드러워지는 데 주목, 자신이 설계한 이우환 공간은 공간과 전시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살피는 쪽으로 공간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 그동안의 일상에서 ‘이건 미우라가 아니라 세워야하고, 앞으로 부산시민과 사람과 주시하여 조급하게 완성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과 세계시민이 모두에게 미우라는 계기가 되는 장소가 되도록 서로 협력할 것’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술관은 ‘이우환’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출발할 때의 의욕과는 달리 세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세계의 소통이 일이 지역적 미술관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하루당일에 빠졌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사감연장을 해주는 ‘이우환 공간’은 원래같이 있었던 지역미술관의 전시 헌팅족을 한국미술의 대표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우환 동문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원시 본편을 개회하고, 차가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동문의 조각 작품 세탁에는 ‘관계화(關係化)’의 풍자하고 최근 회화에는 대화를 내려온다. 이우환 미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의 예술이 예술적으로 인정받고, 예술의 소통과 전파가 중요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 브랑스에서 활동하는 미술평론가이자 예술전문기자 심민복 씨는 이렇게 소망한다.

“이우환 공간이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울이 되어,

이곳으로부터 ‘소울의 유통’과 ‘관계의 리듬’이 융복합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부산미술관의 별관이 아니라 세계미술의 별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최고의 29회가 되겠습니다.”

뭉치자 29회, Hurrah 경고!

졸업40주년 기념 총커밍데이

2015년 4월 25일

본부회장 박성철 재경회장 강희철



제언

경남중학교에 YS 동상을 세우자



이어설 / 27회, 부산전자공고 교장, 전 경남중 교장

모교 경남중고에 근무하는 용마동문들은 전통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봄에스끼게 생각하고 또 그에 걸맞게 평생을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이어 놓은 전통과 기쁨을 유坭나라에 강조하는 것도 그런 깨끗한 연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대종문화상은 경남중고를 전기금을 모금하면서 대내외로 “모교를 만드는 이人们的”이라는 원칙으로 기부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한해야 하는 당시자는 다른 아님” 모교 제작의 본질들이다.

2013년에 경남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회고와 여러 의사 회사에서 고개를 끊어버린 김희석이다. 재학생들이 눈물을 띠고는 고개는 개인적으로 카드를 감아야 했다. 30여년 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닐 때마다 모교에서 행해진 고개는 등문 산책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빠져나왔다.

‘웃을 수 없는 모’라는 지난해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미래의 대통령’이었다. 60대, 고령 학부모와 학생들이 까지마루 시절에 웃돌아가 학장을 하는 것도 그동안이나, 그 시절의 은둔자들이 직립 자세로 변장을 하는 광연은 전장을 찾을 수 없는 가치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재학 생활이 함께 교과와 응용과 부르면서 학생들이 그 날 밤의 통사는 정말 멋진 장관이었다. 특히 노구를 단장에 의 자원에 무대에 오르신 이자기 선생님이 멀리 서울에서 기자회견에 내려온 시장과 청장님이 보며 주신 재자 사탕의 열정은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을 삽아 주었다. 직접 가르치신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재직 교사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 용마들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본심이다.

모교의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자

경남중고와 같은 같은 끝으로 통화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경영학은 전국에서도 상당의 여행과 경력을 자랑하는 등급으로 꽂혀 있다. 부산부동산에서는 경남중고교의 학업우수 학생을 하단별로 경제 선발대에서 맡아 17명을 해외연수 자리를 주고, 아주 후원을 위해 민족·인류 비용은 보조를 주고 있다. 이런 지원은 다른 종합학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학생들이 학교까지 찾아온다니 계획을 짜주는 일도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경남중고만이 대 후한 계획과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생활이란다.

경남중 학생들은 대다수 경남고로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경쟁률은 꽁꽁 뒷으로 품는 대로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것 이 인식된다. 그리고 또 얼마나 40여년 정도 경남고로 진학하고 있다. 경남고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부산 시 교육청과 서구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학교라는 큰 특색의 품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 전



경기 거제시 청곡면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세워진 동상

형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자주적으로 선발함을 알 수 있으며 경남중고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무수한 학생들이 블록하고 와고 풍으로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선발하여 그들을 계속 관리하여 주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우리 모교에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좋은 후배들이 내년 우리 모교에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 억경의 반세기를 지나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과 관련해서 이런 성명을 겸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모교의 모습을 보면 연락과 심장을 숨길 수가 없다. 선배들이 좋은 명성과 영광을 추구해 학생들이 따라 이어갈 수 있음과 함께 우리 학교는 끼는 평온한 학교이며 차지 않다. 선배들이 기여한 수준이 높다. 보다 가난에 미친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모교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교의 모습을 보면 연락과 심장을 숨길 수가 있다. 선배들이 좋은 명성과 영광을 추구해 학생들이 따라 이어갈 수 있음과 함께 우리 학교는 끼는 평온한 학교이며 차지 않다. 선배들이 기여한 수준이 높다. 보다 가난에 미친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모교를 찾을 것이다.

한데 경남중고를 한 몸이라도 둘러싸고 범면으로 유통 기회가 있어있던 때에는 민족에게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대승적으로 겸모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모교 당국과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선배들도 후배들의 학교 수준 신장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한데 경남중고를 한 몸이라도 둘러싸고 범면으로 유통 기회가 있는 경남중고라는 학교는 대체로 요즘 학생들의 애교심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경남중고는 경상은 물론 광동에 대한 결집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회가 담당한 현실이고 선배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죽어 보는 일은 순수하게 글씨를 투자하는 것이 좋았는데 예전에 글씨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보고 남은 글은 영영 볼 수 없어. 지금은 글을 살지 않고 일단 글씨를 투자는 것이 중요하다. 모교 경남중고에 YS 등장을 겸모로 하는 과제를 논할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별한 인연으로 어여 있다. 그분이 경남중 재학시절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란 뜻 글자를 하단별 평화마을에 이 넣은 일본인 일본인 등장과 YS의 개인적 표상으로는 상상도 꿈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회 의원 시절 모교를 찾아서 격려해 주던 모습을 기억하는 경상인들이 많을 것이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을 작성하고 동대문별로 러치 않을 것이다.

경남중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그때서 제작한 후배들이 실제적인 결과 비판은 뛰어넘을 수 있는 회상의 방향으로 YS의 등장을 겸립할 것을 제안 한다. 구구한데 논란을 끌어놓을 필요가 있는 일이다. 확실 대로 말하자면, 경남중에 YS의 등장을 겸립할 일이지만, 최소한 동상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았는가.

YS 등장은 이미 고려 당시에 생기와 대통령기록관 그

리고, 경남중에 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김영삼대학기록관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과 관련해서 이런 성명을 겸들이고 있다.

8.5대행과 함께 경남중으로 옮긴 김영삼은 세웠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뜻을 품었다. 학창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글씨를 써 놓았다. “이 꿈이 있다면 그걸 이루자.”라고 경남중에 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김영삼대학기록관은 그동안 꿈을 세우고 고난과 역경의 반세기를 지나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영광’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은 끝은 같동과 별함을 경계하지 않는 것이다. 옛날의 경남중이 아니다. 선배들이 아름답게 하는 것 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민망한 일이지만, 학교 수준은 서구자체에 중학교에 대한 평판을 드는 평온한 학교이며 차지 않다. 선배들이 기여한 수준이 높다. 보다 가난에 미친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모교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교의 모습을 보면 연락과 심장을 숨길 수가 있다. 선배들이 좋은 명성과 영광을 추구해 학생들이 따라 이어갈 수 있음과 함께 우리 학교는 끼는 평온한 학교이며 차지 않다. 선배들이 기여한 수준이 높다. 보다 가난에 미친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모교를 찾을 것이다.

한데 경남중고를 한 몸이라도 둘러싸고 범면으로 유통 기회가 있는 경남중고라는 학교는 대체로 요즘 학생들의 애교심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경남중고는 경상은 물론 광동에 대한 결집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회가 담당한 현실이고 선배가 학교를 흥미로운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죽어 보는 일은 순수하게 글씨를 투자하는 것이 좋았는데 예전에 글씨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보고 남은 글은 영영 볼 수 없어. 지금은 글을 살지 않고 일단 글씨를 투자는 것이 중요하다. 모교 경남중고에 YS 등장을 겸모로 하는 과제를 논할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졸업 20주년 졸업기념 행사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동기들의 협조와 선우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미처입니다. 동기회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6.25전쟁 참전 동문 338인



보통의 달 6월이다.
5.25 전쟁이 벌벌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이 전
쟁은 여전히 휴전 상태
로서 풍족 간 대결 국면
은 종식되지 못하고 있
다. 유례없이 활동하고

국적인 이 전통에 용마관사 339인이 흡연했다. 경남중고 재학 중에 흡연한 둘째는 238인이며, 졸업한 뒤에 흡연한 것은 대학 재학 중에 흡연한 것의 명령으로 산정했다.

앞에 나온 바를 보면 원국정신과 법률을 잘 모르거나 가능했다. 대 통문은 시합에서 사자로 수령된다.

봉문은 80인이다. 80인 가운데 21인은 대학 재학 중에 흡연했다. 흡연 봉문 가운데 35인이 호흡의 영명으로 산화했다.

출판 품문의 실태와 좋아상이 뛰어나거나 '빛'을 보게 된
곳은 오직 배종현 품문의 낡다른 호국정신과 범족을 모르는
보고 사랑이 결실을 맺으므로 가능했다. 대 품문은
2000년 육군평정하고 기념관에 전시할 역사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과정에 예상으로 왔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625만원에서 신한은행 등급을 포함한
여러한 등급들을 찾아나서 2010년 10월 현재, 33등급의 등
급 명단을 확보했다. 특히, 흠크워너는 이 기관이 국면이 바
뀌면서 2010년의 이름을 풍물에 본격 2011년 2월에 모교에
기증했으며, 흠크워너自身도 교부하였다. 베중진 등문의 집
과 노고에 뜨거운 감동을 보냈다. 때 등문은 서울한국생
활복지 회장과 광주광역시기독기쁨회 회장, 대재 7호등기회
장을 맡고 있다. (국제자치증)

- 이를 아래 밀줄을 친 문동들은 전사한 문동들이다.
 - 해군은 **검색**, 공군은 **청색**, 해병은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했다.
 - (道)은 서울대 상대, (工)은 서울대 공대, (道)은 서울대 치대, (道)은 부산대, (大)는 수산대 재학 중에 학제적 도문도 표시한 것이다.

◎18/4月號

김삼현(金善鉉) 정경식(鄭景植) 서병주(徐秉柱) 최성근(崔成根)

◎ 2011賀智堅

◇ 3회 / 28명 참전, 7명 전사

강성준(준정) 著원래대위曲

국민대비워크 군오군사총회

김나건(사장) 김동열(행사) 김동열(행사) **김두호(총회)**
김병국(대회) 김병호(의사) 김상연(소장) 김성근(행사)
김성한(행장) **김영문(총회)** 김위경(행사) 김준근(행장)
김종호(의사) 김준근(대회) 김한상(행장) 문영구(행장)
문정혁(사장) 문정혁(소장) **변만호(총회)** 김병근(행사)

제작: [한국문화재단](#) | 출판: [한국문화재단](#) | 제작: [한국문화재단](#)

⑤ 8월 3주째 세탁용 접대 12회(1회 11정) 전사
김봉근 행장 김경수(수행) 강성구(시행) 강신배(임시)
강모인(시행) 고종환(행장) 고학순(행장) 고학순(소위)
권의희(임행) 김경수(시행) 김규도(동의) 김규식(대행)
김기우(행장) 김기우(부행장) 김기우(임시) 김기우(부행장)

바보가 따로 없다

배중현 / 재경 7회동기회장



6월 보통의 달이 다가오니 할 일이 더 바빠졌다. 부산아린이대공원에 있는 현7학병동지회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6.25참전기념 주모동사 참석자에게 나눠줄 자료집을 또 만들어야 향기 때문이다.

임이 시작된 것은 6년
전에 전시회 역사자료 수집
하면서부터였다. 이 작업으로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東洋
나의 작업은 그것으로 끝나

영자책을 더 염마야겠다는 엄마가 있었다. 남은 여성 동안 한 자리를 무신으로 봉고하고, 남편과 동문들이 참된 치료를 했다. 풍천 평온 30년. 전사 중 무장을 끌어 세상에 알렸다. 알아 죽 있는 동문들이 모교 풍천을 주모 공간을 마련했고, 관임을 민족화에 폐지하는 일이다.

은 벌써 잊혀진 게 아닌가 하니
이 지나도록 편집·교열·번역 등을
다는 소식을 접은 적이 없다.
이 조성한 '청첩의 집'이 마
도로 대접받는 게 아닌가 싶

외면했고, 자대기도 일어나 풀풀하니 타자하고 칼라 복도로 한다. 경영학원 사업미화 실습에 이르렀다. 하루 네 시도 없고, 범위 자체 넘도 모른다. 일상에 상한 한가지 느끼고 봄은 그대로. 그래서 쓰리계 음금실에 실내 가족들이 간성이 실내 더 츠스되었다. 이제 애간장일은

그리 텁텁티에 배달리다 보니
건강관리는 남의 일이 되었
더 넘은 지도 환경 오빠다. 그
에 새로운 일을 떠올리니, 누
이야. 엔리 대왕님께 “대왕님,
제 기억이 떠오르는 배움에게
한국으로서 할 도리를 포기한
나 자유로여 보내 주십시오!”
6. 용맹은 유한이라는 사실을



代表 金信秀(25期)

⑤ 8월 3주째 세탁용 접대 12회(100회, 11회) 전자
김봉근 행장 김경수(수행) 강성구(시행) 강신배(임시)
강모인(사생) 고종문(행장) 고학순(행장) 고학순(소위)
고의희(임명) 김경수(사생) 김규도(동의) 김규식(대행)
김기우(재명) 김기우(재명) 김기우(재명) 김기우(재명)

김근우 김병기 김민수 김종우 김병주 김상문 김우석 김영한 김무진 김언근 김종중 김정환 김태경 김희경 김호운 김홍근 김형근 김형렬 문득한 문성기 박미숙 박병주 박영선 박영웅 박종국 박현숙 박희경 박희숙 신현숙 신현숙 신현숙 신현숙 신현숙

제작자: 안동현, 편집자: 고승현, 배우: 김도희, 김민경
극 음악감: 윤종학, 음악감: 이정남, 미술감: 이성호
이연길, 이요신, 이재혁, 이종훈, 이원석, 이현경
조 장백상, 전 풍, 정필길, 조민희, 전무희, 최명경, 전
용호, 최창우, 한수미, 김성근, 문성기 | 2016년

258557번 고 친 고향은 구영소 원래시 중간
김관동 김부원 김선경 김시영 김영률 김용현 김정
윤 김준연 김창근 김대원 김대훈 노영래 노영숙
리진호 허교서 배성곤 배종운 박상권 박영규
경 페디클 바풀기 바친한 배희진 배희경 배영주
한

세기회 성화로 손꼽마 선종한 현대을 한 풍 영광
국 업보봉 모현서 목상군 윤봉수 유흥진 유태우
윤일희 이경조 이민우 이양호 이문구 이준대 이재
성 이승오 임대혁 장태웅 전성봉 전파진 전우진
정민관 정민규 정지선 정진우 정진우 정진우

주왕릉 회관을 찾았습니다. 회관은 원래 고려 때
한명숙이 하남에서 활터를 했던 곳입니다.
한명숙 하남에서 활터를 했던 곳입니다. 2022.1.29
298855명 관계용 관회를 견오명 금식환 증가
증가율 최대영 감자국 김봉우 김성현 김영경

본 강연을 감사하면서 김정우 김정광 김종만 김동수 김태완 김효선 박국이 바군무 바탕일 바운구 박재우 바령의 바성화 바언영 바영연 바석우 백진호 백현호 백현우 밴준만 서봉교 서석희 손대관 손근근 신호봉 연동홍 양승모 윤석희 윤우윤 풍

남중 이문열 이정우 이성윤 이서호 이수근 이승우 이승우 이태경 이정원 이준환 이진국 이호근 임경희 임상운 정경화 정 전현경정정화 정미현 한 험세운 정희화 허경운 펠로스 조수미 조현우 조현우 주제워크 차이수 주기훈 주경수 주민수 주민오 주희자 최희정 최희정 한민수 한승경 현계성 허정희 허정희 (서울교대) 2014-5

30248070 관서점 구급서 구형전 편성기 편성
김경수 김계령 김관우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기현
한길복 한길정은 김영길 김영호 김영희 김민경
김재수 김대원 김종신 김재민 김현미 남영호 노현우
조도문서 배나리 박수숙 배원숙 배인기 배인숙

본 고전은 영국에서 매우 유익하고 훌륭한
비평과 바탕에 사경네 세번의 서사편 시험수석
식 송현식 신구란 신윤원 선언기 심풀수 안종
모충조 유영복 유파일 윤인의 은행동 이기환-이재
근 이병건 이수성 이영준 이연호 이종화 이종

이란걸 아파울 때 이어주 이란주 이란걸 이룬은 민승 장학일 장호에 장충상 청경에 판대일 청경 청광미 청기용 청부광 청승은 청명로 청귀화 조연 체염재 죄기운 죄수물 죄진은 체임한 천효 청원인 (건강복, 강당복, 오정조, 어민호, 이란호)

2016년 5월
31호 2500명 강도진 종종류 경기장 경·반 경쟁
경쟁률 경영학 교수총관 경제학관 경기학부 경영학부
연 담기과 남우원부 노련한 행정학 분야에 면접
방법과 대답을 배운다. 면접에 대해서 개인화된 청

영 서풍궁 청마판 춘영과 춘운정 상상화 선수대
진동원 설구당 삼파구 안중수 오만일 모용환 화
호 아베루 이병근 이병대 이성식 이승진 임종현
정명원 정희수 조성근 조영기 최문선 황인국 홍
자 허경진 황민수 황태수 황현수 황현우

여 최단임 최대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322.322증명 강기윤 짐용기 진영호 김 죽 김종호
마슬금 박상우 박영국 박종구 박단원 손행렬 송
의 신국현 신필호를 당선한 당선자로 우디한 등록

예방한 이들간 이동과 이동조 이전우 유행제 침체
정향호 지향군 화영무 화영군 화영원 통구리
34일(20일) 가수 김윤미 김윤모 김상환 김윤수
김종민 김미아 김희영 노인선 바울문 바울문 펜션
수 유희숙 유희숙 이성숙 이진숙 펜션 펜션

수 고령인 고령이 어려운 어려운 경고와 경고
정기적 조건과 조 선 조건에 강약으로 활동을 흥
활 활동과 활동은 **[장기적 2016년]**
350035명 김관우 김기현 김문일 김관석 김홍수
나동희 박민수 모여현 변현근 배종수 박현호 서

온 풍광을 만끽할 만한은 모사문 이기적 이유는
이정행 아령모 이종하 이정행 이효성 정몽준 정자
월 정인월 정자월 정호경 조종석 주귀홍 진호
원현세 서기원 하승운 황용수
36826명 갑관문 김구선 김한우 김영준 김현

김정원 김월원 김현고 바영환 바우림 바율증 사우
원 송인국 신삼덕 이상민 이상준 이상호 이원호
이영한 이학수 임정선 지정선 재현원 최승호 현
철 흥의장
372922290 김기원 김상현 김영근 김종원 김종원

김준오 김형기 김화진-윤진영 송종필 신우진 이재우
장원이 전임수 조상현 조현희 최미령 마나리
정현희 하부남 출발일 확대는
388225명 규모에 김경태 김기현 김민희 김예

399회(16회) 경대경 김도경 김동현 김병기 김경원
김현수 노정수 박민석 박종구 바평구 배윤근 김

성 인수된 아경수 이영원 이파워 풍진회 차운연
40922869 김경자 관광부 김경환 김성곤 김경연
김종률 노원호 문기상 박근상 배우성 박장민 백
준 박재현 유희열 배명관 배성우 세주현 김철현
정민우 윤진현 우영환 윤성운 이기이순호 이영
임미영 정구자 최희경 **온라인 2017-9**
41020869 김선희 권다운 김동현 김민주 김

박상현 박정기 박원의 박진영 양민호 은관희 은우한
윤종신 이정숙 이경호 이관희 이수영 이정우
임경호 정점수 조재봉 천광수 천성원 헌재봉 허정
종 헌정호 취종은 흥서우

43회[10점] 강병규 김진수 바.Protocol 노미디언 퍼포먼스
이성훈 이동환 이효영 정용민 화성희
44회[10점] 김동우 김종현 바탕면 서영민 이정민

영동군민자문회 평생은 학습한 삶의 목
45회(12월) 구자수 김상수 김용주 김태우 김현
박상화 박 응 모윤현 장성미 김상영 최재경 892-
46회(7월) 강성복 김동원 김성원 이주원 장연
한영호 통산회(정명석 2016년 한영호 2022년)

47호(1명) 성남을 송창은 정민호
48호(1명) 김준민
49호(1명) 김태완 김학관 김현우 조영희 최진
황정현
50호(1명) 강민구 바선영 박현우 정현서

51회(3명) 박경호·정진우·최주희
52회(2명) 김상호·장태원
54회(1명) 김종수
55회(1명) 황병준

69세 1명 가족원
69세 1명 청년기 (2023년)
미국 빅토리아 지역 50만원
경고학교 운영위원회 등록증 등봉선 주차증
기수 & 이듬 차인불명 죄명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성명	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상생_기수	급여액	
김민진	100	10만원	김영희 9회	10만원	김선경 10회	10만원	최현숙 10회	10만원	김정운 17회	10만원	이수영 17회	10만원	이수영 18회	10만원	김원근 20회	10만원	
정재경	34회	30만원	김현희 9회	50만원	김정선 10회	50만원	최진숙 10회	20만원	김정운 17회	10만원	이수영 17회	10만원	이수영 18회	10만원	김일숙 20회	10만원	
송우진	34회	100만원	김재현 9회	10만원	김수경 10회	10만원	박예진 10회	10만원	김금연 17회	10만원	이정우 17회	10만원	이정우 18회	10만원	김재현 20회	30만원	
김주희	40회	20만원	김복규 9회	20만원	김용희 10회	10만원	이정숙 10회	10만원	김종현 17회	100만원	이정우 17회	10만원	김종현 18회	10만원	김재현 20회	50만원	
박석민	40회	20만원	상지경 9회	10만원	김우성 10회	10만원	한준희 10회	10만원	김정운 17회	30만원	이정우 17회	10만원	이정우 18회	10만원	김정운 20회	100만원	
백기현	40회	3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김정숙 10회	50만원	김정생 10회	30만원	김정운 17회	300만원	이정우 17회	100만원	김정우 18회	10만원	백기현 20회	500만원	
임영주	44회	300만원	이대구 9회	100만원	김충현 10회	10만원	이정숙 10회	30만원	김화연 17회	70만원	이정우 17회	10만원	김석현 18회	50만원	임영주 20회	300만원	
장수현	44회	100만원	이명숙 9회	10만원	김정숙 10회	10만원	정기현 10회	30만원	김화연 17회	10만원	정기현 18회	20만원	김경관 19회	50만원	백기현 20회	100만원	
정수희	44회	200만원	한동애 9회	50만원	김진숙 10회	20만원	황인연 13회	100만원	문숙운 17회	50만원	장성경 17회	100만원	장성경 18회	10만원	백시현 20회	200만원	
한경숙	54회	100만원	황명숙 9회	20만원	김철기 10회	100만원	김정숙 15회	100만원	백기현 17회	100만원	김정숙 18회	10만원	김정숙 19회	10만원	백은경 20회	100만원	
제2회	54회	100만원	신경숙 10회	20만원	김정숙 17회	100만원	서현숙 10회	10만원	서현숙 17회	100만원	정기현 17회	100만원	정기현 18회	10만원	신경숙 20회	200만원	
김문희	64회	10만원	김선실 10회	20만원	김효국 12회	10만원	소수희 15회	500만원	백기현 17회	20만원	제2회	별도	100만원	김경희 18회	10만원	이상근 20회	100만원
나경연	64회	100만원	김상현 10회	50만원	남기철 12회	100만원	이상미 15회	30만원	방명숙 17회	10만원	장성경 17회	100만원	남기철 18회	100만원	장성경 19회	300만원	
노재현	64회	10만원	백경희 10회	10만원	김정숙 12회	10만원	임명숙 15회	100만원	백선희 17회	100만원	제2회	별도	100만원	장성경 18회	10만원	백경희 20회	100만원
오현민	64회	200만원	백승준 10회	20만원	백용운 12회	10만원	이정숙 15회	10만원	백기현 17회	20만원	소윤경 17회	30만원	백기현 18회	30만원	장구희 20회	300만원	
조경 복	100회	30만원	신대희 10회	20만원	백승준 12회	10만원	한경숙 15회	100만원	백기현 17회	100만원	조경복 17회	500만원	백기현 18회	300만원	장정숙 20회	300만원	
이미경	64회	30만원	오정숙 10회	200만원	백정숙 12회	100만원	곽경숙 15회	100만원	백선희 17회	100만원	전현경 17회	100만원	전현경 18회	10만원	백선희 20회	200만원	
이희숙	64회	30만원	이정희 10회	10만원	백정숙 12회	30만원	송진숙 15회	100만원	백선희 17회	100만원	최민기 17회	5000만원	백준기 18회	100만원	제2회	20회	200만원
정기현	64회	100만원	이연경 10회	20만원	한승자 12회	100만원	김상희 15회	100만원	서예숙 17회	20만원	최기현 17회	100만원	최기현 18회	100만원	정기현 19회	300만원	
정재현	64회	20만원	동희경 9회	20만원	한민경 12회	100만원	곽경숙 15회	100만원	서예숙 17회	200만원	손성근 17회	100만원	이정우 17회	100만원	정재현 18회	100만원	
정근운	64회	10만원	전경희 10회	20만원	한민경 12회	100만원	여성숙 15회	10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정우 17회	300만원	이정우 18회	100만원	한구희 20회	100만원	
정철수	64회	30만원	정승희 10회	50만원	한세숙 12회	30만원	증주경 14회	100만원	송우근 17회	30만원	서예숙 17회	300만원	이정우 17회	100만원	정철수 18회	300만원	
정희경	64회	20만원	조정희 10회	100만원	이세경 12회	100만원	곽경숙 15회	100만원	송우근 17회	100만원	전현경 17회	100만원	전현경 18회	100만원	정희경 19회	100만원	
최상희	64회	10만원	허영희 10회	200만원	육계현 12회	30만원	김정희 15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신현희 17회	100만원	한현희 17회	100만원	이용숙 18회	1000만원	
허 씨	64회	30만원	龐상희 10회	100만원	윤한경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민정숙 17회	20만원	1783년신기화 1단	10만원	이해미 18회	100만원	전재현 19회	1000만원	
이기현 61회	7회	500만원	이경숙 10회	30만원	윤혜경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민정희 17회	30만원	송민경 17회	100만원	제2회	별도	3000만원		
정상숙	64회	840만원	백민경 11회	30만원	이수영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이정숙 17회	1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정상숙 20회	3000만원	
구본규	64회	800만원	신재경 11회	200만원	이승숙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이정숙 17회	3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구본규 20회	3000만원	
김진숙	64회	500만원	김수경 12회	200만원	이승숙 12회	50만원	김경희 17회	100만원	이정숙 17회	1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김진숙 20회	200만원	
백숙영	64회	1000만원	김정숙 12회	100만원	이원숙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윤상숙 17회	500만원	제2회	별도	500만원	황현희 18회	1000만원	김기현 20회	100만원
안종숙	64회	100만원	구본규 12회	30만원	임정숙 12회	3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윤수숙 17회	100만원	김정희 18회	100만원	김정희 19회	100만원	안종숙 20회	100만원	
임신숙	64회	10만원	정진숙 12회	200만원	강정숙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이정숙 17회	1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임신숙 20회	300만원	
이문숙	64회	100만원	김부생 12회	30만원	정정숙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50만원	이정숙 17회	1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김정희 20회	300만원	
정재희	64회	100만원	김상희 12회	100만원	김정숙 12회	100만원	김정희 17회	100만원	이정숙 17회	100만원	이정숙 18회	100만원	이정숙 19회	100만원	김정희 20회	300만원	

2015년도 회비 납부 현황

169 3월 마감

- 23회 복별회비 3000만원
 - 자문위원
송구정(19), 김갑재(19), 조성재(19), 박용미(20),
임경봉(21), 박재상(22)
 - 부회장
박종현(25), 송희규(25), 박삼호(26), 박신동(29),

김현태(30), 류명석(31), 박명진(33), 이양길(41)

이상 2002년

김종일(39), 윤경민(38), 박인석(39), 우영환(40)
이상 10명

卷 383 例題 760E90

- ▶ 본부 분당금 낸 기수
18회, 21회, 23회, 26회, 29회, 30회, 31회, 49회
2014~2015년분
 - ▶ 야구후원금 낸 기수
18회, 21회, 23회, 26회, 29회, 30회, 31회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HUROM

"내겐 너희가 선물이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휴롬주스를 만들고
쑥스러운 마음속 말 한마디 적어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선물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HUROM



휴롬이 특별한 이유



자연의 맛 그대로!

자연으로부터 온 체소·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다



섭취가 간편해!

많은 양의 체소·과일을
한 번으로 간편하게



영양이 다양해!

체소·과일 등 체소·과일의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



효소가 살아 있는!

체소·과일을 가공해 과정 말이
그대로 담아 효소가 살아 있는!